東大新聞

금주일언

진실을 알아 진실이라 하고 거짓을 보아 거짓임을 안다면 이는 바른 계교가 되니 반드시 참 이익을 얻을 것이다. 법구경 · 쌍요품 165절

1999년 (불기 2543년) 1월 1일 (금요일) 제 1263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10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정태섭 /부주간 심규박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최정식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02)260-3491~2 FAX(02)279-1270 /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0561)770-2057

그림=송영방 화백(예술대 미술학과 교수)

손 씻는 아침

윤제림

1
친구여, 나 지금 자네를 생각하며 손을 씻네.
어느 여관이던가 印度로 가는 길,
새로운 세계로 가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오른 손을 깨끗이 씻어두는 것이라며
씻고 또 씻던 자네의 흰 손을 생각하네.
그것은 밥에 대한 예의,
그것은 책에 대한 예의,
그것은 다른 손들에 대한 예의라 했지.

2
나, 이 아침에 손을 씻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식탁을
얼마나 많은 종이와 책들을 더럽혔는가
반성하며 손을 씻네.
나, 지금 못가본 세상의 입구에서 손을 씻네.
8톤 트럭 가득 거대한 시간의 이삿짐들,
저 기나긴 아침 행렬 어딘가엔 자네도 끼어있을 터.
무주 구천동 가는 길 나제통문을 닮은
시간의 문이 저만치 올려다 보이는 개울가에서,
나 지금 손을 씻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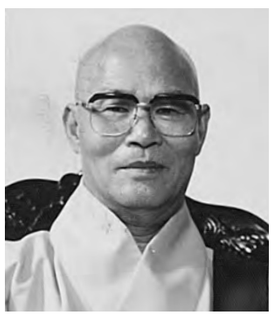
금강역사 금강저를 들고,
동서남북 사천왕들 새 천년의 기치창검을 들고,
퉁방울 눈 흡뜨며, 주먹을 내리겨누며,
가진 것 다 내려놓고 한 손에 잡히는
깨끗한 물건 하나씩만 갖고 가라길래, 친구여
훔친 책들도 버리고, 때묻은 돈다발도 버리고,
낡은 사진첩도 버리고, 흐린 거울도 버리느라
손톱 밑까지 까매진 손을 씻네.
빨래바위 닳도록 하얗게 문지르네.
비누 하나 다 버리며 손을 씻네,
자네의 하얀 손 하나 붙잡고 가려고
말갛게 씻네.

3
친구여, 내 소리쳐 부르거들랑 달려와
새로운 천년 갖고 갈 물건 하나로
내 시린 손 덥석 잡아 주시려는가.
눈덮인 다리 밑 얼음장 깨고
나 지금 손을 씻네, 친구여.
새로 만날 밥들을 위해,
새로 만날 책들을 위해,
새로 만날 다른 손들을 위해.

시=윤제림(국문79 · 시인)

1999, 새천년의 문턱에서

전 동국인이 혼연일체로 동국발전 이뤄갈 때



오녹원 이사장

대망의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가호로 우리 동국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동국가족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동국대학교에서는 개교 92주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기념행사와 학교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결집된 해로써 특히 일산에 불교종합병원 및 제3캠퍼스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진 바 있고, 서울 캠퍼스에는 정보매체센터 및 룸비니관이 머지않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경주캠퍼스에는 경주병원의 준공식 및 부속유치원의 개원식 등 괄목할만한 일들이 활발히 이뤄져 매우 고무적인 한 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밖에도 동국발전에 큰 원력을 지니신 송석구 총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교육개혁 평가에서 3년연속 최우수학교로 선정된 점이나 LA에 있는 동국로얄대학교의 신교사 이전, 그리고 대체로 안정된 면학분위기 속에 동국가족 여러분이 대학발전에 합심협력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대학의 양심과 학문적 자존을 제고하고 학사행정의 개선과 내실을 기함은 물론, 21세기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세계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전 동국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동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불교계가 다소 난맥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동국대학교만은 부처님의 정법수호도량으로서 학문의 연마와 도야를 통해 한국불교의 자존과 위상을 가일층 드높여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몹시 어렵고 힘든 시련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럴수록 우리 동국가족들은 철두철미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지니고 보다 검소하고 근면함은 물론, 학교발전에도 헌신적인 노력과 지혜를 결집시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 녹 원
이사장

개혁의지와 긍정으로 미래전망을 확보하자

송석구 총장

기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국가적 경제위기가 그렇고 거기에 따라 우리 대학사회도 격동과 고난으로 점철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국대학교는 재단과 종단은 물론 동국전체 구성원 여러분들의 순수한 서원과 견고한 신심, 그리고 전국의 불자 여러분, 그리고 동국의 16만 동문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난 해에도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우리 대학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는 점, 전 동국가족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극히 힘들고 괴로운 여건을 감내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어려울 때일수록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기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세의 변천도 모르고, 낡은 생각만을 고집하여 고치지 않는 부정적인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교육개혁과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개혁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동국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대사회적인 책임이자 혁신을 위한 자기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철저한 교수와 학습, 활발한 연구활동, 효율적인 행정 등을 바탕으로 힘찬 도약의 날개를 펼쳐 나갑시다. 기묘년 새해는 아직 우리에게 미래로 남아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 전망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책임이자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새해에도 동국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간망합니다. 본인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호로 동국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동국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송 석 구
총장

동국발전위해 결자해지의 지혜 필요

1백년의 역사를 목전에 두고있는 동국대학교는 그 동안 이상세계 구현이라는 건학이념으로 동국가족 모두는 이를 실천할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재단 이사회에서는 총장선임을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서 동국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유발하는 극히 불행한 학내사태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재단이사회가 총장 임명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학내사태의 문제는 절차와 공정 적법성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도덕적·교육적 차원에서 동국대학교 구성원의 중의를 외면하고 기존의 민주적 관행을 존중하지 못한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동국학원 정관의 합법성만을 주장하며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동국대학교는 도덕적 정당성과 교육적 신뢰성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새해에는 제2의 동국발전을 위하여 결자해지의 지혜로 어둠을 걷고 미래의 희망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수회는 동국가족과 함께 동국대학교의 비약적 도약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더욱 큰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바라오며 교수님과 동국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함께 댁내 만복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유 덕 기
교수회 총회장

서로를 격려하며 신뢰와 희망으로

지난 98년은 학내외적으로 어느 것 하나 순탄치 않은 한 해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은 물론 좌절을 이겨내는 지혜를 주는 것을 업으로 삼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동정을 받는 가슴답답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대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입가진 사람은 모두가 전혀 자기반성없이 남의 탓만 하며 감동없는 성명서를 남발하였습니다. 더 이상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며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기성찰 없이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모습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높은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일주일에 한번쯤은 학생식당에서 줄을 선 이사장님, 총장님 모습을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수,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들은 발전적인 건강한 비판은 적극적으로 하되, 개인적인 불만으로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분풀이성 시비는 자제해야 합니다. 마음에 썩 들지 않아도 그 동기가 애교심의 발로이고, 그 지향하는 목적이 공동선이라면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동국인 모두가 가는 해는 마음깊이 반성하고, 오는 해는 서로를 격려하며 신뢰와 희망으로 맞이합시다. 99년에는 동국가족 모두가 기쁨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눕시다.

백 경 선
서울캠 노조위원장

대의 위해 희생 감내하는 자세 필요

세월의 도도한 흐름은 어느새 막연하게만 여겨지던 21세기 초입에 우리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동안 상상 속의 21세기는 장미빛으로 치장한 채 우리를 무척 기다리게 하더니 막상 한발짝 앞에 도달한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게 함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캠퍼스 역시 이미 경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우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의 자각이 아직 미진한 듯 함이 부디 저 혼자만의 판단이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지역에 공존하고 있는 유수한 대학들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현 장감각을 토대로 한 체제의 구축이 우선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난해 말에 발표된 경주캠퍼스 자율화 방안은 늦은 감은 있지만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만 그보다 먼저 모든 구성원들의 자율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의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자세로 학교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여 이 학교가 지역의 명문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 진 형
경주캠 노조위원장

학우들과 더불어 고민하고 실천할 터

새 천년의 희망으로 일궈갈 99년이 밝았습니다. 그 희망을 희망으로 올곧게 세우기 위하여 98년을 되돌아 보게됩니다. 98년의 한국은 IMF를 앞세운 경제침탈로 민족의 경제를 파탄내고, 한반도의 전쟁책동을 야기시키고 있는 미국에 맞서 민족 자주권의 문제를 주동적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수많은 민중들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투쟁을 벌였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희망은 학내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11월 3일의 동맹휴업과 총궐기 투쟁의 감동은 민족동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억될 것이며, 우리 스스로에게 희망을 발견하며 다시금 민족동국의 학원자주화를 완성하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계기였습니다. 이런 희망을 희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 가야하는 몫에 31대 자주적 총학생회는 충실하고자 합니다. 민족동국의 주인이 바로 일만 이천 학우들임을 잊지 않고, 학우들의 의견에 근거한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우들의 생활과 밀접한 학내 복지의 문제로부터 4천만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내는 일까지 드팀없이 학우들과 더불어 고민하고 실천하는 희망의 99년, 민족동국 31대 자주적 총학생회로 학우들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 호 중
서울캠 총학생회장

학내 민주주의와 자치복원 절대적

학우들이 떠난 온방골은 적적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빈 자리를 채우기라도 하듯 99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입학원서접수 학생들이 온방골을 힘차게 거닐고 있는 있습니다. 새내기를 맞이하는 기쁨보다는, 빼앗겨 버린 학생권력의 회복을 향한 반격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학우 여러분, 99년은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자리했으면 합니다.

자본의 무한침탈이 강행되었던 98년을 넘어 한 세기의 끝자락에서 신음하는 민중, 그들의 삶을 통해 대학과 사회의 미래를 그려보고, 그 척박하기 짝이없는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의 99년 되었으면 합니다.

강제적 사회재편에 맞선 투쟁과 함께 '저항과 진보의 진지로서의 대학'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99년을 살아 갈 대학생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학의 올바른 자리매김, 사회적 역할에 적극적으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학원내 민주주의와 자치의 복원은 절대적입니다. 통치가 아닌 자치와 저항이 살아숨쉬는 대학의 복원, 상실과 절망의 시대를 넘는 교육과 노동의 굳건한 연대를 위해 16대 시대반격 총학생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이 상 섭
경주캠 총학생회장

당당한 주인으로 역량 키워가길

해마다 되풀이하여 찾아오게 마련이지만, 한 해를 마감하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즈음에는 누구나 성찰과 다짐의 시간을 가져보곤 합니다. 방송 매체에서는 지난 98년을 가리켜 '유난히 어려웠던 한 해'가 저물어간다고 했는데, 99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원우들을 비롯한 우리 동국 가족들에게 있어 지나간 1998년은 어떤 한 해였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게 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새로운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나온 과정에 대한 평가와 반성에 근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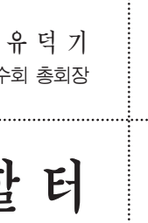
신자유주의의 처절한 배신으로 IMF의 위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의 어려움은 부당한 정리해고, 취업란, 등록금 부담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의 가정에 닥쳐왔고, 교육환경 개선, 총장 선출 문제를 비롯한 학내 제반 사안들은 진리 탐구의 상아탑, 지성인의 산실이라는 대학 공간에 대한 원칙적 고민들을 새삼스레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조금은 거리가 있는 듯한 이들 모습에서 '우리의 역량'을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창출해내는 당당한 주인·주체로서, 동국발전과 자주·민주의 새천년을 맞이할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99년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이 석 종
대학원 총학생회장

동달이

김 경 일 〈22〉



동악광장

목멱길

축하합니다

△오늘 박때가 취직했대요.

수고하셨습니다

△철주야, 대철아! 1년동안 수고했다. 내년에도 고생해라. -떨어지는 똥
△정식이형, 용환이형, 인택이형, 진이형, 해경이형 3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해요. -모두가

새해 복 받으세요

△동국대학교 경주(慶州)캠퍼스 동대신문사 이해경 편집부장님, 장희정, 박양우, 황성규 기자님 그리고 수습들, 간사님 등등 새해 복 많이 받으시와요. -In Seoul 석장의 0화

열심히 합시다

△세기말이다. 어떤 이는 취직을 하고 어떤 이는 선생님이 되어 있다. 하지만 난…. 새천년이 나에게 희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세기말을 지나 새천년을 기다리는 예비졸업생
△올해도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99년에는 성실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반드시 소원성취 하리라!
△불답학회 여러분 잘 다녀오세요. 우리 마지막 밤은 함께 하죠? -갱
△혜원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답니다. 열심히하고 대신 건강관리 잘해라. -친구가

그리고…

△법대 소모임 Liberal지 총무 "임형신" 군대간다. 애들아 잘 있거라! 편지 잘 해다오…. 모든 것이 새롭구먼~"
△여자친구가 없어 무지막지한 놈이랑 정동진 갔다. 여자친구좀 소개시켜줘라. -깜찍이 재남
△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연히 왔다가 들려 봤는데 "동국대" 괜찮더군요. 지금 아쉬움으로 돌아갑니다. "너의 인생은 네 손으로 빚어라" -인규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또 한해가 간다. 내년엔 꼭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

온방길

축하합니다

△28일 생일을 맞는 허수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도 격어지는구나. 그러나 기죽지는 않는다. -Hello my friend
△3일은 사랑하는 울엄니 미정씨의 생신입니다. -가족이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언협 의장님 각단위사 짱님들 그리고 언협 집행부 여러분….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십시요. -안티고네?

새해 복받으세요

△98년, 많이 우울했던 한해 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희망찬 99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국인 여러분. -HAPPY

열심히 합시다

△그 옛날 창창했던 해경님!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할꼬…. 하지만 굳세게 살아라. -반짝반짝

그리고…

△광현아 군대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지금쯤 죽도록 훈련 받고 있겠지.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라. 꽃필날이 오겠지. -색마가
△우리모두 군대가는 응진이와 강언이에게 애인을 구해 줍시다. -친구 and 선배가
△인숙언니, 새해에도 몸건강하고 밝은 모습 기대할께요. -동상이

신한은행 이희건 회장 명예경제학박사 학위 수여

본교는 지난해 12월16일 교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희건 신한은행 회장에게 명예경제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이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을 창립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점을 높이 평가받아 박사학위를 받게되었다.

참사람봉사단 불우이웃돕기 후원금 기탁

참사람 봉사단(단장=송석구·철학)은 지난해 12월 25일 중구관내 무의탁 노인, 모자 가정,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불우이웃 돕기 후원금을 기탁했다.

노동조합 사회봉사부는 1백만원을, 정심회는 40만원을 후원했으며 생활협동조합 직원들은 김장 5백포기를 손수 담아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제27회 동국인의 밤 개최 이태근씨 등 감사패 수여

제27회 동국인의 밤이 지난해 12월 17일 5백여명이 동문 및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 소피텔 앰베서더에서 개최되었다. 지찬경(경찰행정 76)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황명수(정치외교 53)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가 오늘날의 총동창회와 모교를 있게 한 힘의 원천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태근(정치외교 58) 북미주총동창회장이 감사패를, 승진과 영전으로 동국인의 이름을 빛낸 김진억(법학 64) 전라북도의회 의장외 19명이 축하패를, 지부지회 활성화 및 동문 단합에 기여한 김상도(상학 65) 협성철강 대표이사 외 41명이 공로패를 받았다.

여학생부처 인터넷 무료교육 실시

서울캠 여학생부처(처장=임돈희·사학)는 동계방학을 맞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오는 2월 26일까지 인터넷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기초 인터넷활용과 전자 상거래이며, 강사는 본교 재학생인 황윤정(역교4)양과 류은정(컴공3)양이다. 2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되며 오는 4일부터 2월 8일까지는 매주 월요일에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극영상학부·경찰행정학과 특차 평균점수 상승

서울캠 정시모집 5.2대1 … 양캠 특차수석 박지은양·김성수군

99학년도 서울캠 정시모집이 5.2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 까지 실시된 정시모집에서 총2천3백76명 모집에 1만2천4백99명이 지원하였으며 특히 연극연상학부 연기·기술은 15명 모집에 5백60명이 지원해 37.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야)는 21명 모집에 5백87명이 지원해 27.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정시모집 지원자는 오는 10일 예비소집을 갖고 예능계는 11일부터 14일까지 면접 및 실기고사를 인문계열은 12일에, 자연계열은 13일에 각각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입학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97학년도부터 약 5대1의 일정수준의 지원률을 보였다"며 "이러한 안정적인 지원율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특차모집은 2.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극영상학부 연기·기술은 15명 모집에 8백86명이 지원해 59.06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차모집의 최고 득점자는 390.38점을 획득하여 예·체능계 수석을 차지한 한성과학고의 박지은양으로 연극연상학부 이론·연출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극연상학부 연기·기술에 이정재, 김소연 등 현 연기자들이 지원해 합격하기도 했다.

특히 수능성적 4%이내 지원자격이 주어지는 연극영상학부 이론·연출, 경찰행정학과 등의 평균점수가 지난해 2.9%에서 1.6%로, 2.9%에서 2.3%로 각각 1.3%, 0. 6%의 상승을 보였다.

경주캠 특차일반전형을 살펴보면 정원 48명에 총 지원 1백54명이 지원해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수능 성적이 인문·자연계열의 전국상위 2% 이내에 지원이 가능한 한의예과의 경우 24명 모집에 78명이 지원을 해 3.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의예과는 수능성적 상위 4% 이내 10명 모집에 44명이 지원을 해 4.41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이번 특차일반전형에서 최고 득점자는 한의예과를 지원한 김성수(학성고졸)군으로 총 1천점 만점(종합생활기록부 4백점 만점, 수능성적 6백점 만점)에 수능성적 3백86.73(4백점 기준), 총점 9백80.095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입학과는 "예년에 비해 특차특별전형이 정원에 미달이 돼 타 계열에서 추가로 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치러진 경주캠 정시 모집에서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기숙사를 개방했다.

도서관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한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2차 민중대회

서울 비롯 전국 9개도시 동시 개최

정리해고 저지·재벌해체 등 근본적인 사회개혁 촉구

'정리해고 저지, 생존권 사수, 재벌 해체, IMF 반대를 위한 2차 민중대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을 비롯한 부산, 광주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이번 민중대회는 지난해 11월 8일 치러진 1차 민중대회의 10개 결의사항을 재차 확인하고 정부당국에 요구하는 자리였다.

각 지역별 집회와 더불어 열린 '수도권 민중대회'는 오후 2시 종묘에서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기획국장의 사회로 사전집회의 막을 올렸다. 먼저 서인영 조흥시스템 노조위원장은 현재 명동성당에는 회사측의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조흥시스템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실업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권인호 민교협 교수는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안고 출범한 현 정권이 오히려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대통령 자신도 양심수 출신이면서 왜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에 관한 현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사전집회에 이어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대회에서 이갑용 민주노총위원장은 "국민적 합으로 이루어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일방적인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은 노동자만의 희생을 요구할 뿐이다"며 노사정위원회의 부당성을 비난하고 노동자들의 단합을 호소했다.

2차 민중대회에서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있다.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또한 "추운 겨울에도 강제철거로 사람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노점상 단속으로 빈민들의 생존권은 위협 당하고 있다"며 민중생존권 사수투쟁에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대회는 정리해고 저지, 재벌해체, IMF반대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을 끝으로 참가자들은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경찰간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두 차례에 걸친 민중대회는 현시기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의 당면문제 해결과 함께 현 정부의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촉구하고, 이후 전개될 민중들의 투쟁에 대한 도화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숙 기자

교수회 14대 총장후보 선출

홍치유·조희영 교수 … 재단, "인정할 수 없다"

교수회(회장=유덕기·생명자원경제학)의 14대 총장후보 추천 선거에서 홍치유 교수와 조희영 교수가 총장후보로 선출됐다.

지난해 12월 14일 교수회의실에서 진행된 개표결과,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교수와 해외파견교수를 제외한 총 유권자 4백93명중 2백 48명이 투표에 참여해 50.3%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마감기한인 12월 9일을 넘긴 표와 유권자의 이름이 적히지 않은 표 등 무효표 21표를 제외한 2백27표 가운데 기호 1번 조희영(경영학) 후보가 89표, 기호 2번 신현제(경주캠 영문학) 후보가 22표, 기호 3번 홍치유(물리학) 후보가 1백 4표, 기호 5번 신용태(일문학) 후보가 4표를 각각 득표했다.

개표가 진행된 후 네 후보가 1차 투표의 1, 2위 득표자를 차기 총장후보로 추천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2차 투표는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회의 투표에 대해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학교측에서는 이번 선거의 총유권자수는 5백25명으로 유권자 수와 무효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이번 선거의 전면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며, 법인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선거전 정확한 유권자 확인을 학교당국에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교수회 선관위에서 유권자를 자체 집계해서 선거를 치렀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8면

교수동정

▲김주필(응용생물학)=지난 12월 2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중국 산 늑대거미에 관한 연구차 중국 북경 방문

▲이금석(컴퓨터공학)=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대만에서 열리는 학술회의 참가

▲이혜은(지리교육학)=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1999ECAI meeting에서 논문발표

▲양민(중국 청화대)=올해 3월 1일부터 2천년 2월 28일까지 1년간 경주캠 중문과 교수로 초빙

본사사령

◇임 정기자
▲이미숙
(사과대 사회과학계열 1)
◇임 수습기자
▲김미영
(인문과학대 한국어문학부 1)
◇의원면직
▲정영희
(인문과학대 한국어문학부1)
이상 1월 1일자

보리수

인연

정 성 본(불교문화대 불교학부)

인간은 불가사의한 만남의 인연으로 새로운 세계로의 삶을 가꿀 수 있게 된다. 인간은 본대로 배운대로 먹고 살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즉 뜻하지 않게 맺어진 인연이 결국 자신의 인생에 직업이 되고 삶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인연의 법칙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참된 의미를 잘 알고 보다 좋은 인연을 맺고 또 그 인연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누누히 강조하고 있다.

인생을 살면서 장애없이 매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을 순연(順緣)이라고 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인연을 역연(逆緣)이라고 한다. 그러나 순연과 역연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바뀌고 전변(轉變)하는 것이다. '금강경'에 '고정된 법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처럼 순연이 역연이 되고 역연이 순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역경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 노력하는 사람은 역연을 순연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역연이라고 낙담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인연에 의한 것임을 잘 알고 또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자신을 갖고 자기의 참된 살림살이가 되도록 이것을 잘 살리도록 해야 한다.

농부의 뿌린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난다고 할지라도 뿌린 씨앗에서 보다 좋은 싹을 돋게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한층 더 비옥한 토지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단순한 씨앗을 심는 일보다 그 씨앗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작업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과 끊임없는 정진을 환경설정(緣)이라고 한다. 환경설정의 인연을 잘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에 의해서 우리들 인생의 방향은 모두 결정된다고 하겠다. 인간은 각자 무진장(無盡藏)한 지혜를 개발하는 불성(佛性)이란 씨앗의 보물을 지니고 있다. 각자의 무한한 가능성과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이다.

이러한 불성의 씨앗은 좋은 인연을 맺고 스승을 통한 교육과 주변의 환경설정을 잘 만들어 주어야 무진장한 보물의 지혜로 각자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창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새해를 맞이하여 각자가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게 정신적으로는 여유와 편안과 행복하게 사회적으로는 건전하게 세상을 위하고 인류를 위하고 일체중생을 위하여 도움이 되고 힘이될 수 있는 자신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궁핍한 경지에 있을지라도 초조해 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목적과 신념을 가지고 지금의 할 일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역경을 자신을 만드는 수양의 기회로 만들며 지금 여기서 자신의 하는 일을 통해 이웃과 인류를 위하는 이타정신의 보살도로 적극적인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함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추운 겨울일수록 나무는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래야 돌아오는 새봄에 더욱 멋지고 향기나는 아름다운 꽃를 피울 수 있는 것이다.

대학운영위원회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우리 함께 여기해요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동국의 발전은
시급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금 학내는 불교종합병원 건립, 제3캠퍼스, 구조조정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옛말처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봅시다.
바로 여기 대학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동대신문사

대학운영위원회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식당업주 선정시 학생참여 하되 의결권 없다"

소위원회 - 직원대표 3명 학생대표 2명 고문위원 2명, 식당문제 논의키로 합의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이상섭·불교3 이하 중운위) 위원들이 곧 있을 식당업주 선정문제를 두고 지난 29일 학생 및 사무처장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나, 서로간에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기화될 전망이다.

중운위측은 식당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7차례에 걸쳐 학교측과의 면담을 가져 왔으며, 지난 24일 총학생회사무실에서 11명의 단대학생회장 및 자치기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중 1차 중운위를 가진 이후 매일 비상중운위를 소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운위 위원들은 '식당문제의 장기적 대안을 위한 기획안'을 학생 및 사무처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학교측에 요구한 사항은 △학생회관 및 도서관 식당 업주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자료 공개 △학내 식당을 포함 모든 복지매장에 대한 공개입찰 △대학복지위원회(가칭)의 구성을 통한 학생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입찰후 대학복지위원회를 통해 식당운영상에 따른 모든 사안을 함께 논의 △생활소비협동조합 건설과정에 학생 참여보장 등이다.

이에 대해 황재영 부총학생회장(수교3)은 "1백 50평의 공간에 하루평균 3천여명이 넘게 이용하는 학생회관 식당이 어떻게 보증금 7백만원에 월세가 50여만원 밖에 안되는지 의문이 생기며 지금까지 식당계약시 학교측과 업주측과의 수의계약에 따른 투명성문제도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며 식당업주의 공개입찰시 학생들의 참여보장을 주장했다.

공개입찰과 관련해 장용철 사무처장은 "공개입찰의 장단점이 있고 학생주체들의 요구가 그러하다면 지금까지의 식당업주 선정에 변화를 주기위해서도 공개입찰을 실시하겠으며, 이를 통해 더나은 방법으로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학생자치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시범기간을 두고 학생들이 직접 식품구입량, 질, 식단메뉴 등을 체크하는 방식"을 중운위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중운위측이 제시하는 대학복지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보장이 어려운 이유로 △행정 제도상의 까다로운 절차 △다른 위원회의 구성원(기존 행정위원회 성격)과 비교해 볼때 형평성 논리에 부적합 등을 들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진은 지난 29일 학생처장실에서 가진 간담회 모습

이에 이상섭 총학생회장은 "학생회관을 비롯한 도서관 식당의 이용자 대부분이 학생들이며, 이는 학생들의 의식주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감안할때 식당업주 공개입찰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이후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가진 중운위 회의에서는 이번 식당문제에 대해 지난 30일까지 학교측이 확답을 주지 않거나 학생참여의 제도적 뒤받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운위 차원에서 학내 주요 장소에 이에 대한 유인물 배포와 선전작업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비쳤다.

이후, 지난 30일 학교측은 "식당업주선정을 위한 직원 3명, 학생대표 2명, 고문위원 2명을 포함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식당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소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장희정 기자

지정연, 창업보육센터 건립 추진

34개 창업 기획안 채택… 오는 3월 2차 공모

지역정책연구소(소장=황윤식·회계학 이하 지정연)는 지난해 11월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창업 계획서를 공모한 결과 34개의 계획안을 1차 선정했다.

현재 지정연은 산하에 창업보육센터 건립기획단(단장=변정용·전자계산학)을 두어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정연의 문태수(정보산업학)교수는 "이번달 안에 부총장 산하의 독립적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며, 3월안에 경주캠 창업보육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창업보육센터 건립은 인근지역과 다른 특수성을 이용, 경주만의 문화테크노파크 조성에 그 의의가 있으며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위해 현재 필요한 요건으로는 건물 신축과 투자기금 확보, 창업세미나 및 법령교육 등이라 덧붙였다.

창업보육센터는 경주시·경북 추천업체 5곳, 창업보육센터 직영사업 1곳, 공모사업선정업체 14곳 등의 20여 업체에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건평 2백 50평의 조립식 건축물로 지어질 예정이며, 오는 3월안에 2차 공모전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지정연의 황윤식 소장은 "학생들이 졸업 이전에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사구시적인 열린 교육을 구현한다는데 보육센터 건립의 근본적인 취지를 두고있으며,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겨울방학 참사랑 봉사단 모집

올 학기초부터 직불카드 겸용 학생증 발급

장학과(과장=하정윤)는 98학년도 겨울방학 참사람봉사단을 교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봉사활동기간은 99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는 2월 28일까지 최소 33시간 이상을 완료해야 되며, 오리엔테이션 (3시간)일정은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봉사단 참가 학생에게는 △봉사활동이후 1주일 이내에 봉사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수강신청시 제한학점 초과 신청가능 △졸업이수학점으로 2학점까지 이수가능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겨울 방학동안 활동할 참사람봉사단 산하 비행 청소년 선도봉사단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50여명이며, 신청시 대구지검 소년전담검사 경주지청과 함께 참사람봉사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장학과 한병모 계장은 "겨울방학동안에 학교와 사회에 봉사할수 있는 이번 행사에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장학과는 학과 및 동아리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연중 공모할 예정이다. 자격은 7인이상이 참가해 3개월이상의 봉사활동을 할수 있는 학과 및 동아리팀이며, 채택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금도 지급된다.

한편, 장학과는 99학년도 1학기부터 직불카드를 겸한 학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우선 이 학생증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개강후 사진이 일괄적으로 수거된 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장학과 측은 "이미 타 대학의 경우 예전부터 직불카드제를 시행해 오고 있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올해 초부터 지급하는 학생증이 학생들의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산연, 월간 인터넷 선정

전국 지역 정보사이트부문 "1위"

98 월간 인터넷이 선정한 전국지역 정보사이트 부문에서 관광산업연구소(소장=서태양·관광경영학 이하 관산연)의 인터넷 사이트인 '경북관광정보'(http://www.kyoungbuktour.or.kr)가 1위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관산연의 경북관련 정보사이트는 경북도내 관광명소, 숙박편의시설 등을 문의하는 네티즌들에게 시기와 상황에 맞는 상세한 답변을 해주는 Q&A코너가 있는점이 특이하다.

이와 관련해 관산연측은 "학술적인 자료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한점이 1위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준 것 같다"며 "앞으로 더 다양하고 좋은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관산연의 주요활동을 보면 △천리안을 비롯한 5개 국내 공중 통신망 정보제공 △경상북도 관광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관리 △불국사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정보제공 등이며, 이외에도 △불교문화 중심의 관광가이드 교육 △관광통역교육 등의 자원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왔다.

생활관, 21일부터 4일간 개방

수험생을 위한 숙식 제공

금장생활관(관장=김복순·국사학)은 99학년도 정시모집전형 중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4일간 생활관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직접방문 및 전화연락(또는 온라인 접수)으로 접수 가능한 생활관 사용은 지난 달 28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금액은 1인을 기준으로 △1박 2일(2식)=1만 8천 5백원 △2박 3일(5식)=3만 9천 5백원이다.

이와 관련해 금장생활관의 한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비용을 최소화하기위해 기숙사를 개방한 것이며, 예년과 달리 침구류도 제공해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시년도와 관련해 금장생활관에서 수용하는 인원은 남학생 5백 32명, 여학생 3백 37명이며, 호실수는 2인 1실을 기준으로 총 3백 6실이다.

인턴사원 지원율 저조… 무기한 연기

지방학생에게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 이뤄져야

취업과(과장=채찬호)는 당초 노동부에서 본교에 배당한 인턴사원 1백 48명중 신청자가 30명에 불과해 인원이 마감될때까지 인턴사원모집기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턴사원 신청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3D업종에 따른 최저월보수 적용 △규정직업이 아닌 아르바이트 형식의 일 △대학 졸업이후 3D 직종 종사회피 등이다.

이에 대해 취업과의 한 관계자는 "대학졸업이라는 가식된 명분보다는 현실을 감안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이든 할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이번 인턴사원제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대도시에 소재해 있어 본교 학생들이 인턴사원이 됐을시 이농해야 하는 등 거쥐의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지방학생들을 위한 정부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계절학기 2과목 개설

'생활과 조경', '북한사회의 이해'

교무과(과장=조원생)는 지난달 21일부터 16일간 98학년도 겨울 계절학기를 실시한다.

계절학기 중 이번에 2과목이 새롭게 개설됐으며, 개설과목은 △생활과 조경=홍광표(조경학)교수, 오전 9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북한사회의 이해=황의서(국제관계학)교수, 오후 1시30분부터 3시20분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교무과의 한 관계자는 "초기에는 여러 과목에 대한 개설요청이 들어왔으나, 인원조정 관계로 2과목밖에 개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 '송년의 밤' 가져

직원노동조합(위원장=이진형·교무과)은 지난달 22일 금장생활관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송년의 밤 행사는 위원장 인사말, 총장 및 부총장 격려사 순으로 이뤄진 1부행사와 만찬 행사로 치러진 2부행사로 나누어 진행됐다.

99 군사훈련 참가

학군단(단장=김태경·중령)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6일까지 '99군사관 기초 군사훈련을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가진다.

2학년 20여명이 참가해△병영생활 체험 및 후보생 교육과정 소개 △군사 기본지식 습득 △각종 규정교육 등을 받게된다.

(전문)대졸 미취업자 정보통신 전환교육생 모집 안내

본 컴퓨터교육원은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대졸 미취업자 정보통신 전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생을 아래와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 모집인원 : 40명(선착순모집, 교육비 70% 정보통신부 지원)
2. 지원자격 : 대학 및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전공분야 제한 없음, 대학원, 해외유학, 군복무 기간 등은 상기기간에서 제외, 고용보험 수혜자 제외)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99. 2. 8 ~ 99. 2. 19
   나. 구비서류 : 소정양식(지원서, 서약서), 졸업증명서1통, 주민등록증사본, 컴퓨터관련 자격증 사본 (취득자에 한함)
4. 교육기간 : 1999. 3. 1 ~ 1999. 8. 31
5. 교육내용 :

소프트웨어기술 엔지니어 과정 전산학개론, 워드프로세서, 인터넷, 파워포인트, 홈페이지기초, 전자계산기구조,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컴퓨터통신망, 시스템분석설계, C언어, 소프트웨어공학, 전산수학, 프로젝트수행

6. 교육장소 : 동국대학교 컴퓨터교육원(도서관 3층)
7. 교육특징 · 평생 인터넷, 전자우편 ID 발급
   · 취업특강 개최 및 취업박람회 참가
   · 동국대학교 취업과와 협력하여 취업알선
   · 인터넷을 통한 취업 알선
8. 문 의 : (0561)770-2486~9 (09:00 ~ 17:00)
   http://moonsu.dongguk.ac.kr

컴퓨터교육원장

컴퓨터실습실 방중 개방시간 안내

98년도 동계방학 중 단축근무로 인해 컴퓨터실습실 개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오니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기간 : 99. 1. 1 ~ 99. 2. 19

   가. 개방시간 : 오전 09 : 30 ~ 15 : 00

   나. 개방 가능한 실습실

기 간	실 습 실
1월1일 ~ 1월 29일	실습실 C(진흥관2층)
2월1일 ~ 2월 19일	실습실B(도서관3층)

2. 기타사항

   가. 재학생에 한해 실습실 사용가능. (외부인 출입통제)

   나. 사용중 실습실내 음식물 반입 및 잡담 금지.

학 생 처 장

99-1학기 학적업무 일정 안내

'99학년도 제 1학기 학적업무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주어진 기간내에 관련사항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정
   가. 복학 및 재입학 : 99. 2. 22(월) ~ 2. 24(수)
   나. 일반휴학 :99. 3. 2(화) ~ 3. 4(목)
   다. 전부(과) 신청 : 99. 3. 2(화) ~ 3. 3(수)
      * 대상자 : 2학년 복학생으로 1학년 성적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 원서 교부 및 접수 : 해당대학 교학과
   라. 복수전공 신청(추가) : 99. 3. 2(화) ~ 3. 3(수)
      * 대상자 : 3학년 재학생 중 미신청자 및 복학생
   마. 조기졸업 신청 : 99. 3. 8(월) ~ 3. 10(수)
      * 대상자 : 4학년 재학생으로 7학기이내 최저졸업학점이 이수가능하고 성적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2.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교무처 학적팀 (☎ 2038~39)
3. 유의사항: 해당 학생은 반드시 주어진 기간을 준수하여 차후 신청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바람.

교 무 처 장

토익 · 토플 특강 안내

1. 개강 : 99년 1월 4일(개강일에는 수강생 전원 토익 모의시험 무료 실시)

과 목	강의시간	교육내용	교 재
아카데미 토플반	오전 9시 ~ 오전 10시	영문법의 이해,독해 단어·숙어 강의	별도구입
토익 L/C반	오전 10시10분 ~ 오전 11시10분	Listening을위한 part별 출제경향 분석	무료지급
토익 R/C 반	오전 11시20분 ~ 오후 12시20분	문법어휘, 오문정정에 대한 대응 요령 학습	무료지급
신경향 토플반	오후 1시 ~ 오후 2시	어원을 통한 영단어 숙어 강의, 직독직해	별도구입

2. 수강료 : 2개월 35,000원(1개월:25,000)주 5일 강의
3. 초빙강사 : 김성태 선생(토익 950점. 경북대 영문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과정. 경산대 및 기업체 전임강사로 재직)
4. 강의실 : A306
5. 접수기간 : 1998년 12월 7일 - 1999년 1월 4일
6. 접수처 : 취업과(원효관 수의실 옆) T: 770-2054

학 생 처 장

중도, 8일까지 부분 휴관 원서접수 및 고사 관계로

중앙도서관(관장=김병식·화학공학)은 99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원서 접수 및 고사 관계로 지난 해 12월 22일부터 오는 8일까지 제 1열람실을 휴관하며, 오늘(1일)은 신년휴가로 전관 휴관한다.

한편, 방학을 맞아 오는 2월 20일까지 1층 멀티미디어실, 2층 과제도서실, 불교학 자료실, 3층 참고도서실, 정기 간행물실 등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개관하며 토요일은 휴관한다.

외국어교육원 시청각실 개방시간 단축

외국어교육원(원장=김정매·영문학)은 동계방학을 맞아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시청각실 개방시간을 단축 운영한다. 학기중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하던 것을 이번 동계방학 기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개방시간을 조절했다.

99학년도 O·T 22일부터 새터 24일 소백산에서

99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오는 2월 22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일주일동안 진행된다. 22일에는 전체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토익시험이 치러지며, 23일에는 단과대별 오리엔테이션과 수강신청이, 24일부터 28일까지는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새내기 새로배움터가 소백산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이석종·유진호 조 당선

15대 대학원 총학생회 정·부회장으로 이석종(임학 박사과정 1학기)·유진호(사회학석사과정 2학기)조가 투표율 18.4%, 지지율 91%로 당선됐다.

정 — 정

제1262호(12월 7일자) 학생회 선거 관련기사 불교대 불교학부 '정·부학생회장'을 학부대표로 정정합니다.

본교 대학운영위원회 창설 가시화

총학, 간담회에서 제안 … 학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본교에도 교수, 학생, 직원 등의 학내 3주체와 학교측의 대표가 참여해 전반적인 학교발전과 학내 현안들에 대해 상설적으로 논의·의결 할 수 있는 가칭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기구의 창설제안은 지난 12월 18일 총장실에서 열린 학교 당국과 학생대표들간의 만남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학교 당국도 기구 창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학교측에서 송석구 총장을 비롯해서 오정수(산림자원학) 학생처장 등과 학생대표로 제31대 김호중(불교4)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5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운영위 문제를 비롯해서 △이월적립금 문제 △불교종합병원 재정확보방안 문제 △학내 공간 활용문제 △학제개편문제 등이 논의됐으며, 이후 상시적인 간담회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학생대표들이 제안한 운영위의 모습은 위원장을 총장으로 하고 교수, 학부생, 대학원생, 직원 등 학내 제주체 대표 각각 2명을 구성원으로 하고, 예산의 편성과 운영을 하는 독립기구이며 △본교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기능 △학교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 의결권 △재단과 학교의 운영에 심각한 의혹이 발생시 외부감사실시권 등을 주요 권한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송석구(철학) 총장은 옴부즈맨제도 도입 등 이후에 학생처와 학생들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가져가자는 의견을 제시해 일단은 논의가 주춤한 상태이다.

실제로 조선대, 한신대 등에서는 대학 자치협의회, 교수, 직원, 학생 3자 협의회 등이 있고, 서울대에서도 빠르면 다음 학기부터 '대학평의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 학교에서는 학교의 모든 주체가 참여하여 학교발전방안과 중요한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실질적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의 경우, 현 조규철 총장이 제안해서 지난해 11월 16일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건학정신을 구현하여 합리적인 학교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학교 운영의 중요한 정책을 최종 심의하여 민주적 학교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18일 총장실에서 학생대표와 송석구 총장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호중 총학생회장은 "학생회가 중심이 돼 운영위를 먼저 제안했지만 앞으로 학내의 모든 주체들과 함께 운영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직원노조, 대학원 총학생회, 교수회 등에서도 "논의 기구가 있는 것만으로 상당한 대화가 오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민주적인 공간으로 자리 매김 해왔던 대학에서 다시한번 학내제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대학은 진정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운영위 건설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유철주 기자

노동부 주관 인턴사원제 학생 '북적'

취업난 타개위한 자구책 …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노동부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취업 대학생 인턴사원 1차 모집결과 본교에서는 4백여명의 학생들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각 대학에서 졸업생, 졸업예정자, 휴학생(7학기 이수자), 졸업 후 군전역(예정)자 등의 신청을 받아 각 기업과의 협의로 학생들이 기업에서 일정기간 산업현장 경험 및 사회 적응 기회를 갖도록 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턴사원제는 올 99년 한해 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선발학생의 근무기간은 6개월간이며 보수는 국내 5대그룹 계열사가 월 40만원, 중소기업은 월 50만원이며, 매달 식대 및 교통비로 30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체를 우선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나 영업직과 같이 임시 고용직으로 선발하는 업체에는 인턴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인턴제 시행으로 국내 5대 그룹에서는 6개월간의 인턴기간 이후 그 인턴사원들을 계속 채용할 예정이어서 극심한 취업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병수 취업과장은 "인턴사원제가 근본적인 대학생 실업문제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취업난을 타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초 발급은 무료입니다"

새 학생증 발급 신청 부진

지난해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새학생증 발급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증 발급 신청서 배포 및 접수를 담당하는 각 대학 교학과의 홍보가 미약해 신청서 배포 및 회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증 변경 사항 공고문에 개재된 재발급 비용 5천원이 최초발급비용으로 학생들에게 오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장학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학생증은 기존의 학생증과 마찬가지로 최초 발급은 무료이며 재발급 시에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동연, 학자간담회 진행

총장낙점·이월적립금 문제 등 토론

동아리연합회(회장=박종근·영문(야)3) 학자 간담회가 지난 달 22일 각 동아리 대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학내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의식을 함께 공유하고자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한 학기동안 학내에서 쟁점화 되었던 총장낙점, 5백억 이월적립금, 불교종합병원 건립 및 제3캠퍼스 건립문제, 본교를 비롯한 대학구조조정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현재 총학생회에서 학교당국에 제안한 대학운영위 건설문제와 공간활용, 등록금 및 학제개편문제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동국산악회 마나슬루봉 정복

박영석동문 히말라야 14좌중 9번째 등정

지난해 12월 6일 박영석동문이 이끄는 동국산악회가 히말라야의 마나슬루봉(8천1백63m) 정복에 성공했다.

이로써 박영석동문은 8천m급 봉우리로는 10번째, 히말라야 14좌중엔 9번째 봉우리를 정복하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11월 5일 네팔 사마가웅 부근 베이스캠프에서 출발한 후 눈보라와 거센 바람 탓에 2차례 정상공격에 실패한 끝에 현지 셰르파 2명과 함께 정상을 밟았다.

박영석동문은 앞으로 마칼루, 칸첸중가, 시사팡마, 브로드피크, K2를 오르면 히말라야 8천m급 고봉 14좌를 모두 정복하게 된다.

회전무대

도난사고

O…"수갑 좀 채워주세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학생회관내 공간을 사용하는 주인들이 학기말을 빙자(?)해 문단속을 하지않고 귀가를 하는 경우가 허다해 수위 아저씨들을 애타게 하는데.

더욱이 수차례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가져갈 것이 없다"는 이유를 대니, 이들에게서 최소한의 주인의식은 이미 떠난지 오래고.

이를 본 회전무대자 왈 "분실물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도난당하셨군요"

집회

O…"누가 누가 잘하나?"

지난해 12월 18일 2백번째를 맞이한 미군범죄 근절과 한미 행정협정개정을 위한 금요집회와 벌써 몇년째 계속되고 있는 민가협의 목요집회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과거 정권에서 행해졌던 일들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이에 한 동국인 한마디 "이렇게 가다가 매일매일 집회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려!!"

보여요

O…"잡상인 출입 금지!"

올해도 어김없이 입시철은 다가와 원서를 든 수험생들이 동악을 가득 메웠는데.

이를 틈타 논술 문제지와 입시자료집을 판매하는 무리들이 수험생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는 선배로 둔갑한 이들은 수험생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화려한(?) 상술을 펼쳤으니.

이를 보고있던 한 진짜선배 왈, "선배의 탈을 쓴 잡상인, 잘 보면 보입니다!"

스피드 종이컵

O…"여긴 운동장이 아니라구요"

내용인즉 정숙해야 할 도서관이 종이컵을 이용해 족구를 즐기는 몇몇 학생들로 인해 순식간에 수라장이 돼버렸다는데.

심지어 주위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모습(?)에 공부하던 학생들조차 두손두발 다 들었다고.이를 본 한 학우 왈 "종이컵 재활용!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합시다"

동국발전기금소식

기간: 98.10.1-11.30까지

발전기금/불교종합병원건립기금

▲1천만원이상

용곡대학 11,200,700원 (합13,875,620)

김상규(건축토목공학부 교수)1천만원(합1천2백만원)

박현준(한의85졸,박사과정)1천만원

윤종영(한의86졸,박사과정)1천만원

한국R.F(주차관리업체)1천만원(합105,000,000원)

▲5백만원

박정극(화학공학과교수)합23,010,000원)

조정래(국어국문학과66졸,소설가)

▲1백만원이상

김태부(명예교수)3백만원(합5백만원)

신상국(한의94졸,한의원원장)2백만원

민인숙(한의95졸,한의학과석사과정)2백만원

이원창(한의88졸,한의학과석사과정)2백만원

주승균(한의학과석사과정)2백만원

北전전생1,120,070원

일본불교대학1,098,490원(합40,063,905원)

▲1백만원

강수남(신도) 강중수(신도)

강호달(경영학과73졸)

고한용(경영학과95졸,공인회계사)

곽정건(신도), 구본수(신도)

구봉회(학부모,구자훈의부)

권기상(신도)

권미영(신도,평택중앙초등학교교사)

권송학불교계(신도),

권정오불교계(신도), 권혁산(신도)

김경동(한의85졸)

김광수(신도,광영엔지니어링대표)

김광진(한의89졸), 김수성(한의87졸)

김선호(신도,해태제과영업소대리)

김수진(신도), 김승환(신도)

김영해(한의88졸), 김진기(신도)

김천권(신도), 김태은(신도)

김태호(신도), 김현수(한의89졸)

김형태(신도), 김희준(한의87졸)

김효순(스님, 화운사원장)

문말득(스님), 문복순(신도)

문상원(한의85졸), 박길원(신도)

박애자(정관, 금강사회복지관관장)

박우재(신도), 박종호(신도)

박정이(신도, 중화당건재약업사)

박화순(신도), 배묘전(신도)

서재영(신도), 서종은(한의88졸)

신현식(정치외교학과61졸)

원영희(신도), 유기례(신도)

위동렬(신도, 한국외환은행지점장)

유성욱(신도), 유중관(신도)

윤미숙(신도), 이대연(신도)

윤병선(스님, 대원사주지)

이무형(한의85졸), 이분순(신도)

이상헌(한의88졸), 이태연(신도)

이운영(농학과70졸, 신용보증기금지점장)

이한필(신도), 이화숙(신도)

이효숙(신도, 삼성전자연희대리점)

임인제, 장희순(신도)

전미영(여학생부처 상담원)

정병운(한의91졸), 정인채(한의86졸)

정주화(한의87졸), 정형구(신도)

조을유(스님, 마하연주지)

최명석(신도), 최순기(불교대학원)

최재웅(신도), 최재진(한의85졸)

최효순(신도), 한근성(스님, 자은사)

한덕표(신도), 허명재(신도)

홍영선(신도), 황원만(한의88졸)

황정자(신도)

▲50만원이상

고경숙(행정대학원)80만원

유길수(문화예술대학원)70만원(합270만원)

▲50만원

김길성(한의90졸), 김상균(한의91졸)

김성대(한의94졸), 김세윤(한의94졸)

박명진(신도, 동우건축)

박연서(신도), 박원영(한의92졸)

박창조(한의89졸), 박태훈(한의91졸)

서영준(한의95졸), 손현주(한의94졸)

이경아(한의91졸), 이구형(한의94졸)

이우헌(한의94졸), 이채중(한의93졸)

장경서(신도), 정영재(한의92졸)

황영근(한의91졸)

▲20만원

박명자

백암용화사(사찰)(합40만원)

불교대학원묘각모임

우경례(스님)

▲10만원

김사훈(신도)

박석권(신도), 박성은(신도)

박연범(불교대학원), 박재교

신일선, 안진숙(신도), 원경열(신도)

원용진(신문방송학과 교수)

원종천(신도), 이순우(스님)

이해진(신도), 임월선(신도)

임중연(기계공학과 교수)

장복숙(스님), 장지영(신도)

정심회, 정영석(스님)

최귀임(신도), 최수명(신도)

허선복(신도), 혜정스님(스님)

홍종숙(신도)

황성출(신도)(합20만원)

▲5만원이상

이진구7만원

이순출(신도)6만원(합19만원)

▲5만원

곽두성(신도), 김광록(신도)

김광지(신도)

김창현(신도)(합15만원)

서인자(신도)

안영순(신도,백합이부자리대표)

윤길복(신도), 윤창순(신도)

익명, 장명숙(신도), 장조자(신도)

조영태(신도), 한정숙(신도)

황성출(신도)(합20만원)

▲4만원이상

이미정(95졸)4만5천원

김경동4만원, 임채우4만원

전광순(95졸)4만원

▲3만원

김반야성(신도), 문범일

손송평(신도), 송자광심

우경점(신도), 이학구(신도)

이홍래, 임점순(불교대학원)

전광수, 하근수

▲2만원

강동훈, 구현숙, 김금옥, 김년두

김의분, 김정애(합4만원)

맹정자, 목진흥(합6만원)

박수현(합4만원), 박신자(합5만원)

박영자, 송기섭(거성산업대표)

이상일, 이윤태(불교대학원)

이윤현(합6만원), 이청자

임영숙(한정약국약사)(합5만원)

정덕순

정혜련(선학과4년)(합22만원)

조규석, 최진숙

▲1만원

강위선, 고혜영, 김경남(합5만원)

김명자(합3만원), 김명환, 김민란

김민준, 김양자(합5만원), 김영자

김원준, 김재현, 김해옥, 김홍

류혜영, 문도일, 문범일(합3만원)

문병옥, 문보익, 문현경, 박순자

박신자(합5만원), 박은아(동문)

배완재, 성일용, 성춘복(합4만원)

송자광심(합3만원), 오다순

이명숙(합3만원), 이영숙

이점례, 이춘나(합3만원), 익명

익명

임영숙(한정약국약사)(합5만원)

임지은, 정점남, 진명숙

▲5천원

문학란, 최민경

동국사랑저금통기금

황영수(비서실장)75,040원(합203,530원)

김정대(대학원 교학부직원)50,110원

안재봉(법인사무처총무과장)43,300원(합91,685원)

박준영(산업시스템공학부 교수)38,020원

총장비서실34,560원

송석구(총장)33,330원(합109,310원)

김상애(총무과직원)30,830원

박의룡(동국의료원총무과장)30,270원

김진환(기획팀직원)3만원

류변성(예산조정과직원)3만원

조병묵(임학과졸,강원대교수)28,000원(합113,330원)

박동수(불교대학원교학계장)26,550원

김지환(기획팀직원)26,210원

특정목적기금

▲일본학연구소지원금

신한은행(은행장 라응찬)3억원

▲석림원건립기금

조계종교육원1억원

경주석림회1천5백만원

경주학인스님일동8백만원

보경사5백만원, 포항보경사5백만원

동명불원5백만원, 문수사3백만원

영남불교대학(우학스님)150만원

무관스님, 만성암(주용스님)

불영사, 한보광(100주년사업본부장)

강릉법왕사50만원, 보광원30만원

▲법과대학발전기금

신광수(인도철학과74졸,은해사주지)1천만원(합11,000,000원)

김장곤(동문,S.K 건설이사)2백만원

김희옥(법학과72졸,수원지검평택지청장)

문한성(법학과83졸,변호사)1백만원

이태윤(법학과71,강남도시가스(주)상무)1백만원

최석권(법학과88졸)1백만원

성진경(법학과63졸)30만원

이재목(법학과86졸)30만원

정대진(법학과63졸,세무사)30만원(합130만원)

조성호(동문, 수원지검사무관)30만원

박재일(신도, SGI한국불교회이사장)20만원

법륜스님(스님)20만원, 익명20만원

임창렬(경기도지사)20만원

현진스님(행정대학원)20만원

고기복(법학과98)10만원

김미수(행정대학원, 진관사)10만원

김성준(법학과81졸, 법무부)10만원

김세용(법학과70졸, 대한광업진흥공사차장)10만원

김은실(행정대학원)10만원

박용재(법학과70졸, 국민체육진흥공단실장)10만원

반금환(법학과64졸, 제일행정고시학원장)10만원

손해순(불교학과87졸, 법계사)10만원

신기훈(법과대학 교학계장)10만원

이기화(경제학과59졸,세동회계법인이사)10만원

이복우(행정대학원,중앙승가대학교학부계장)10만원

이윤종(법학과59졸,임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10만원

이재휘(행정대학원,진관사)10만원

이춘(국어국문학과61졸,동서울상업고등학교교감)10만원

장경란10만원

정민배(법학과79졸)10만원

정윤훈(법학과60졸)10만원

이인진(법학과63졸,청량실업고등학교)5만원

익명5만원

익명5만원

정현수(일반대학원)5만원

홍순상(법학과61졸)5만원

홍영표(법학과96졸)5만원

김혁3만원

꼬망스3만원

어창2만원

수증물품

고려화학(대표 김충세)Biofuge외 13종(총15 종)212,808,524원 상당 - 화학공학과 수증

한국전자(대표 곽정소)Furnace System(Tube Cleaner)9천50만원 상당 - 물리반도체과학부 수증

유럽단일통화 실시 논단

유로화 출범, 경제회생의 기회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국제 통화질서가 근본적인 변혁기를 맞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유럽단일통화 유로(Euro)화가 출범하면서 유로랜드로 불리는 유럽연합 11개국의 경제국경이 사실상 사라졌다.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축인 유럽연합이 유로를 출범시킴으로써 세계경제권은 미국, 일본, 유럽의 신삼국지 시대로 재편되는 급류를 타고 있다. 유로는 일본 엔화와 함께 미 달러화를 견제할 수 있는 세계 기축통화로 커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년동안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속에 진행돼온 유럽통합이 유럽단일통화를 통해 한발짝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유로지폐와 주화가 시중에 통용되는 것은 2002년 1월이나, 올해부터 정부간 혹은 은행간 거래는 유로로 표시되고 일반 상품에도 자국 통화와 유로 표시의 가격표가 붙는다. 지난달 31일 시세로 각국 통화의 환율이 결정되어 2002년 6월 30일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자국 화폐표시든, 외화표시든, 유로 표시든, 거래에 하등 차이가 없다(유럽과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1유로에 1.18달러, 1.95마르크, 6.54프랑 수준을 전망했었다). 유럽통화통합(EMU) 참가 11개국은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핀란드·아일랜드·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이며, 영국·스웨덴·덴마크·그리스는 자국 사정으로 인해 3-4년 동안 참여를 유보했다.

유로랜드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미국에 비해 근소하게 뒤지지만, 무역규모에서는 두 배 이상 앞선다. 향후 5년내 나머지 4개국이 동참할 경우 국내총생산에서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단일통화권으로 부상할 것이며, 유로화를 통한 역내외 거래가 50-100% 늘면 유로화는 세계 기축통화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결제통화로서 달러의 아성이 무너지고, 각국의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의 우선 순위가 뒤로 밀릴지 모른다. 전문가들은 유로의 출범과 동시에 최소한 5천억달러, 많게는 1조달러가 유로로 옷을 갈아입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왜 국제통화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가. 일국의 통화가 국제통화가 되면 그 국가는 통화명목가치와 제조비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세녀리지(seigniorage)효과와 더불어 저렴한 자금조달 등에 의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달러가 국제통화가 됨으로써 얻는 미국의 세녀리지는 연간 80억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저렴한 자금조달에 의한 이익은 연간 50억-1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축통화국이 향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경제정책의 초점을 국내문제의 해결에 둘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는 환율변동 등 대외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게 된다.

유럽연합 15개국 중 13개국에서 좌파가 단독 또는 연정으로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경제정책도 분배, 복지에 중점을 두는 사회안정정책에 정상들이 합의함으로서 좌파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의 새로운 정책실험 와중에 유로화가 출범했는데, 유로화는 시간이 갈수록 한국경제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유로화 출범에 대비해온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한국경제 주체들이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할 때라고 충고한다.

한국 정부의 대외 자산과 대외 부채의 90% 이상이 현재는 달러로 표시되었지만, 그 중 상당한 몫을 장차 유로로 전환해야 할 것인데, 그럴 경우 유로와 달러의 환율변동에 따라 상당한 환차손이나 환차익이 발생할 것이다. 출범 초기의 시장확대와 비용 절감으로 유로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 못지 않게, 실업과 재정 적자와 정책 마찰 등으로 유로가 약세를 면치 못하리라는 예상도 만만치 않다. 기업으로서

황의서
법정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도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무역대금 결제에서도 현재 85% 수준을 차지하는 달러의 비중을 낮추고, 3% 수준인 유럽연합 회원국 통화의 비중을 최소한 유로통화권 국가의 무역비중과 비슷한 15% 수준까지 유로화 결제비중을 높임으로써 달러 약세화에 따른 환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유럽경제권에 대한 경제외교 강화로 예상되는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환경이 개선되는 유럽기업의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제의 구상(아시아 통화기금(AMF)의 창설을 포함한)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과 같은 중진국의 입장에서 치열한 세계경쟁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협력과 통합을 추진하는 길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강대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99 대학언론 탄압

"신문쟁이는 신문을 만들고 싶다"

독자의 알 권리 보장위해 언론탄압 중지돼야

대학내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올바른 학내상황과 사회현상에 대한 알권리 제공을 위해 작업하는 곳이 대학신문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사회는 구조상 이러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나마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대학에서 조차 헌법에 명시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묵살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학교측은 신문을 홍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대학신문기자들이 어길시 권리를 묵살하고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학교측의 약점을 들추어 내는 경우, 사회에서 민감하게 논의되는 현상을 거론하는 경우,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판함으로 인해 학교측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학교측은 학생 기자들에게 기사 삭제나 다른 기사로의 선회를 요구하며, 기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신문발행을 거부하는 태도로 대학언론을 탄압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대표적인 예로 전남대학교 신문사의 경우는 지난 9월 29일 수의대에서 88년부터 10년간 대학의 묵인하에 대부분의 실험용 동물사체를 대학구내에 매립한 사실을 보도하려 했지만 학교측에 의해 발행이 중단됐다. 이후 각 언론에서 이 사건이 보도된 후에야 정상발행되는 등 언론탄압의 위험수위를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성균관대학교 신문사의 경우는 지난 11월 16일 발간예정이었던 1240호가 학교측의 불허로 정상적으로 배포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1240호에 실릴 예정인 "조선일보를 반대한다"는 사설에 대해 주간교수가 사회적으로 민감하니 삭제하고 다른 기사로 대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원대학교 신문사의 경우 학내 재단비리와 부정이 얼룩진 서원대 총장의 퇴진운동이 벌어지고 있던 상황기사를 지난 6월 24일자에 실을 예정이었으나 학교측은 "그런 기사를 게재한다면 각 구성원의 불신만을 조장할 뿐"이라며 발행을 중지했다.

이밖에도 노골적인 편집권 침해로 지난 5년간 정상적인 발행을 중단한 세종대 신문사, 논문을 표절한 교수의 퇴진상황기사를 게재하려다 발행이 중단된 제주대 신문사, 지난 9월 7일 실린 정치수배해제 광고에 대해 학교측은 삭제하지 않으면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아직까지 신문발행이 되지 못한 조선대 신문사, IMF이후 '알맹이 없는 나라'라는 1면 광고를 삭제하지 않아 주간교수가 발행을 중지한 인제대 신문사 등 많은 대학신문사들이 학교측의 제지로 인해 언론·표현의 자유 및 편집권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대학신문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생기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학교측은 신문이 단순한 홍보수단이 아니고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작됨을 명심하고, 독자들의 참다운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학신문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박양우 기자

동굴만평

김경일

사설

새해아침 동국의 발전을 기원하며

새해 새아침을 맞았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개인마다 다르겠으나 지난날들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는 점에서는 모두에게 같은 일일 것이다. 흔히들 한해를 보낼 때는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을 쓴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만큼 이 표현이 피부에 와 닿은 해는 없었을 것이다.

우선 지구촌 각 지역에서는 국가간, 민족간에 전쟁으로 얼룩진 한 해였다. 지구촌의 화약고라 할 수 있는 발칸반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는 민족과 종교문제가 실타래 처럼 엉켜 수 천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독일 통일의 대부였던 콜총리가 젊은 새 지도자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깨끗하게 은퇴한 것이 아름다운 뉴스였다면 클린턴대통령의 성추문 사건으로 인한 하원탄핵안 통과는 부도덕한 지도자에게 보내는 커다란 경고였다.

국내로 눈을 돌려봐도 지난해는 격변의 한해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야의 수평적 정권교체로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였으나, IMF의 경제난 속에서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 부랑자 아닌 부랑자가 되어 찬 시멘트 바닥 위에서 잠을 청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 속에서 출발한 새 정부는 정책 수행에 있어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에 성공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고 있다.

본교 역시 지난해는 미증유의 변혁을 겪은 한 해였다.

이천만 불교도들의 숙원이었던 불교종합병원이 기공되었고, 3년 연속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발전의 초석이 되는 일들도 많았으나 송석구 총장의 연임결정으로 인한 학내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 문제는 치유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교수회에서는 학교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강행하여 두 명의 총장후보를 재단에 추천하였으나, 재단은 추천서의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투표율의 계산 방법 등 여러 가지 잡음 속에 끝난 이번 선거를 두고 학내 각 주체들의 입장은 착잡하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어차피 치러진 선거결과를 놓고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인가가 우리 앞에 과제로 남아있다. 이번 일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누구보다 앞서 나가야 할 본교의 장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선 당사자인 학교와 교수회는 서로 냉정하게 한 걸음 물러나 이번 일을 보아야할 것이다. 교수회는 통신투표라는 변칙적인 방법까지 사용하여 선거를 치루었으나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한 책임을 솔직히 시인하고 자숙해야 한다. 이미 교수들 뿐 아니라 다른 주체들이 내리는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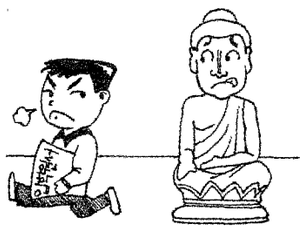
학교 당국 역시 비록 절대적 참여는 아니지만 비교적 많은 수의 교수들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항간에 나도는 징계설 등은 문제 해결의 진정한 방법이 아님을 충고하고 싶다.

우리는 교수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숙하게 자리잡을 것을 진정으로 바란다. 동국의 발전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개될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가 주어진 분야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교만이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특성화시키고 이를 중흥의 바탕으로 삼아야 하겠다.

밝아오는 새해를 바라보며 동국의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

동악로



입시

99년 입시 정시 원서모집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난 29일 도서관 앞. 공사장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임시 난로가 시커먼 그을음을 내며 추위에 돌돌 떠는 학생들을 반긴다. 적잖이 긴장한 눈치이기는 하지만 홍조띤 그네들의 모습은 어떻게 봐도 싱싱하기만 하다. 곳곳에 책상을 가져다 놓고 자상하게 학과 홍보를 하는 너댓명의 재학생들은 추위도 아랑곳 않고 장차 자신들의 후배가 될 수험생들이 좋아 마냥 함박웃음을 짓는다.

긴장과 웃음이 공존하는 원서접수장의 분위기는 예년과 다를 바 없었다. 기자는 새삼 궁금해졌다. 지난 29일 총무원장이 선출되면서 일단락 되기는 했지만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만든 조계종 사태는 수험생이 종립대학인 본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거리낌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스님들이 치고 박고 싸우는 걸 보면 솔직히 학교 선택하기가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영문학과 야간강좌에 특차 합격했다는 한 수험생은 평소 가졌던 본교에 대한 이미지와 자신의 소신이 본교를 주저없이 선택하게 했다고 당차게 말한다. 이 학생의 경우처럼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번 조계종 사태와 상관없이 본교를 지원했다. 하지만 본교 이미지 실추가 컸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99년도 특차모집에서 전체경쟁률은 지난해와 비슷했다. 하지만 이는 연극영상학부(이론·연출 전공)와 경찰행정학과 등 소위 인기학과의 지원자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차모집을 하는 많은 학과에서 미달사태가 연출됐다.

"조계종 사태가 본교 지원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그것만을 탓해서는 안되겠죠. 우리 모두가 홍보요원이 돼서 본교를 알려내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입학과의 한 직원이 기자에게 전한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어른거린다.

김미경 기자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하라

미군범죄, 45년 이후 10만건 … 미군기지앞 금요집회 2백회 맞아

'미군범죄근절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위한 금요집회'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주최로 지난해 12월 18일 용산 미군기지 정문에서 열렸다.

94년 12월 28일 이래 2백회를 맞이한 금요집회는 홍익대 조중필씨 살해사건 진상규명 촉구대회를 겸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정오 무렵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인 정진우씨의 사회로 집회를 시작하였으며 곧이어 이화여대 풍물패의 식전공연이 있었다.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김윤심씨는 연대사에서 "일제시대에는 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겨 수많은 조선 처녀들이 정신대에 끌려가 개만도 못한 대우를 받아야 했다. 안타깝게도 일제의 만행 앞에 무력하기만 했던 국가의 모습을 지금은 미군폭력 앞에서 답습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과의 평등한 관계 개선을 촉구하였다.

97년 4월 3일 미군속 자녀와 그의 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조중필씨의 부친인 조성전씨는 유족연설에서 "우리 아들은 분명히 이들이 휘두른 칼에 맞아 죽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들을 죽인 살인범들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명은 무죄로, 한명은 8.15 특별 사면 조치로 풀어주었다. 우리는 지금 자국민의 인권조차 보호해주지 못하는 법 안에서 살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임대표인 전우섭씨의 성명서 낭독 이후 집회에 참가한 시민과 학생들은 '미군범죄근절'이라고 쓰여진 커다란 플래카드 위에 민족자주의 결의를 다지는 짧은 글을 남기었으며 이로써 이번 집회는 마무리되었다.

지난해 12월 28일 용산미군기지앞에서 2백회를 맞은 금요집회의 모습.

집회를 주관하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92년 10월 미군 케네스 마클에게 살해당한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계기로 결성되어 그동안 미군범죄 신고센터 운영과 금요집회 등 평화적 방법으로 미군범죄근절을 위한 활동을 벌여나갔다.

이러한 노력은 95년 11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협상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했지만 협상이 한 조항도 개정되지 않은 채 끝나버려 미군범죄 피해자는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다. 미군 범죄는 45년 미군주둔 이후 10만건이 넘어서고 있다. 특히 67년부터 87년 까지 20년간 발생한 미군 범죄는 총 3만9천4백52건으로 하루 평균 5건이며 드러나지 않는 범죄까지 합한다면 양은 더욱 많아진다. 반면에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재판권 행사율은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불평등함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자체의 불평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협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이러한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백회를 맞이한 미군범죄근절 대책마련 집회를 비롯한 민중들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미숙 기자

주한미군 범죄사례

사례 1 93년 5월 29일 서울 서초동에서 레벤호프를 경영하던 김국혜(53)씨는 미2사단 소속 존 로저 살로이스(27)병장에게 구타와 성폭행을 당해 뇌골절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다. 사건 직후 김국혜씨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다.

가해자의 성폭행여부에 관한 논란으로 일관된 재판에서 한국경찰의 고의 혹은 과실로 결정적인 증거가 인멸되었고, 검찰의 소극적 태도로 말미암아 원심의 징역 10년이 파기되고 2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되었다.

더욱이 이는 민사관계에도 적용되어 실제 치료비 2000만원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3천 9백만원의 배상을 받는데 그쳤다. 한편, 로저 병장은 95년 1월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95년 김영삼정부의 8.15특사로 석방되었다.

사례 2 96년 9월 7일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서문경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이기순씨가 예리한 흉기로 목이 반쯤 잘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범인은 뮤니크 에릭 스티븐 이병으로 밝혀졌다. 97년 1월 16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 현재 항소 계류중이다. 이기순씨 유족들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를 상대로 1억 7천만원의 배상신청을 내었지만, 미군측은 유족에게 7천8백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최종 통보하였다.

사례 3 97년 4월 3일 이태원 버거킹에서 재미교포 에디리와 페터슨이 아무런 살인동기 없이 조중필(홍익대 4년)씨를 칼로 목과 가슴 등을 난자해 숨지게 했다. 사건발생 후 검찰에 자진한 에디리는 1심에서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또한 증거인멸과 폭력죄로 기소된 페터슨도 1심에서 징역 단기 1년과 장기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지만, 8.15특사로 풀려났다. 이로써 조중필씨의 살해용의자 두명은 모두 풀려나게 되었다. 현재 운동본부는 피해자 가족과 함께 서명운동 전개, 서울지검에 항의서한 보내기 등 다양하게 진상규명과 살인범 처벌을 위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

사례 4 98년 5월 28일 황순자씨는 자신의 돈을 사기친 이철희씨와 다투던 중 도망가려던 그를 붙잡는 과정에서 부인 김수영씨(미8군 영내 대학 강사)의 폭행으로 앞아랫니 3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폭행을 당한 직후 황씨는 주거지역내의 노량진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관할경찰서가 아니라며 받아주지 않았다. 억울한 황씨는 다시 고소했지만, 경찰은 가해자의 신분을 이유로 검찰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후 6월 28일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가해자인 김수영씨는 자신의 폭행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SOFA적용을 통해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 했다. 황씨는 지난 9월 7일 7백50만원의 국가배상청구를 한 상태이다.

정리=사회부

일련의 조계종 사태와 관련하여

총무원장에 고산 스님 선출로 일단락

근본적인 해결위해 제도 개선과 본연의 자세 찾아야

대한불교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에 고산 스님(쌍계사 주지)이 선출됐다. 지난 12월 29일 조계사에서 진행된 총무원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3백14명 중 2백8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산스님은 1백67표를 얻어 1백15표에 그친 지선스님(백양사 주지)을 제치고 당선됐다.

이로써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불자들에게는 상처로 멍울진 조계종 사태도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새로운 총무원장과 월하 종정을 비롯한 정화개혁회의와의 갈등을 풀어 나가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고, 총무원장 선거만 되면 매번 벌어지는 이러한 분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도 개혁과제로 남아 있다.

조계종사태에서 보여졌던 세속적 권력을 둘러싼 폭력사태는 단순히 이번만의 일은 아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총무원장 선거때만 되면 번번히 일어나는 다툼이다.

이러한 잦은 분규는 일본의 식민지 강점 시절 총독부가 1911년 사찰령을 제정해 재산관리권을 비롯한 운영전권을 주지스님에게 넘겨준데서부터 시작한다. 조선시대까지 그저 사찰에 머물며 사찰을 관리하는 대리인이었던 주지라는 자리는 이때부터 많은 사찰의 재산을 주무르며 전권을 행사하는 권력의 자리로 변모하게 된다.

여기에 폭력이 더해진 것은 해방후 이승만 정권이 '대처승은 사찰에서 물러가라'는 정화유시를 내리고, 비구와 대처승간에 벌어진 절뺏기 싸움으로부터 기인한다. 절뺏기 싸움의 과정에서 대의명분만 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무방하다는 비불교적인 사고가 팽배했으며 총무원 청사를 무력으로 점거만 하면 모든 권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기막힌 발상도 이때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조계종 분규는 세속적인 권력과 돈을 둘러싸고 여기에 폭력이 동원된 반불교적인 양상으로 전개돼 가고 있는 것이다.

권력과 돈을 갖기 위한 이러한 싸움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사찰의 운영과 재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승려의 자질을 개선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출가승려뿐 아니라 신도들의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사찰운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담보해 내는 것이다. 사찰의 재정문제를 주지 혼자 처리하는 현재의 제도는 결국 주지자리만 차지하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사고를 팽배하게 만든 주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또, 행자교육을 비롯한 스님들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보여졌듯이 연행된 승려중 90%가 전과자 였다는 사실은 그 동안 승단을 청정하게 만드는 기초적인 계율이나 청규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적용돼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와 더불어 승려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자정작업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도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보다 승가 본연의 출가정신을 확립하는 것이다. 스님들이 수행자의 기본 정신인 무소유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이번 사태와 같이 돈과 권력을 사이에 둔 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남대철 기자

한총련 2차구국농성

IMF선탁통치 청산, 국가보안법 철폐, 한국대학생 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탄압 분쇄를 위한 한총련 2차 구국농성단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1차 농성이 국가보안법 철폐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투쟁이었다면, 2차 농성때는 17일 한총련 동시다발 국보법 철폐대회를 치뤘고,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농성을 펼치고 있다. 특히 농성 예정 마지막날인 26일에는 명동성당에서 구국의 기치를 내세우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등 여러 단체의 지지를 받은 뒤, 한양대에서 2천여명의 한총련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송년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국보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및 90년대 조국통일 기원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벌여 2차농성의 절정을 이뤘다. 하지만 26일까지 예정되었던 이번 농성은 농성취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며, 현재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훈〉

'99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생모집

【대학원석사과정특별전형】

1. 모집학과 및 인원 · 각 학과별 약간명

모집학과	전 공
정보통신공학	정보통신공학
의 학 (경 주)	해부학, 병리학, 예방의학, 생리학, 약리학, 미생물학, 내과학, 일반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신경외과학, 흉부외과학, 정형외과학, 피부과학, 임상병리학, 방사선과학, 비뇨기과학, 마취과학, 성형외과학, 안과학, 가정의학과학, 이비인후과학, 생화학, 신경과학, 치과학, 정신과학
영상·정보통신 특성화 프로그램 (학과간 연계 교육과정)	연 계 학 과
디지털영상제작 전공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영상정보처리 전공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관리학과, 연극영화학과

※ 본 대학원은 석사과정 3학기 내에 수료 가능함

*** 정보통신 우수대학 선정 영상·정보통신 특성화 프로그램 전공인증과정에 지원하는 학생은 연계학과중 한개 학과를 선택하여 위 해당전공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통신 특성화 프로그램 전공인증과정 이수자에게는 소속학과 학위와 전공인증서를 수여함**

2. 지원자격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3. 전 형 방 법 ·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4. 지원서 교부 : 1999. 1. 11(월) ~ 1. 19(화)

5. 지원서 접수 : 1999. 1. 18(월) ~ 1. 19(화)
지원서는 09:00~17 00까지 본 대학원 교학부에서 교부 및 접수함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본교 학술문화관 수위실에서 교부함)

6. 전형일시 : 1999. 1. 22(금) 10 00

※ 동일계 출신이 아닌자도 응시할 수 있음 (의학과는 제외)

• 입시안내 인터넷 주소 http://www.dongguk.ac.kr
• E-mail : anny@cakra.dongguk.ac.kr, bskkk@cakra.dongguk.ac.kr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260-3093~5, Fax 260-3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정보통신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260-3843으로 문의 바랍니다.

【경영대학원(야간)】

1.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과정, 연구과정

학 과	전 공
경 영 학 과	조직·인사관리, 생산·품질경영, 마아케팅, 재무·증권금융, 국제경영
회 계 학 과	회계학, 세무회계
경 제 학 과	관리경제
무 역 학 과	통상·무역이론, 무역실무·경영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
부 동 산 학 과	부동산
선물·금융공학과	선물·옵션거래
서비스경영학과	관광경영, 유통서비스, 광고관리

2.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 및 면접

3. 지원자격
가. 석사 및 연구과정
1)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99년 2월 졸업 예정자
2)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기타 교육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나. 특별우대 전형자
1)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5년 이상 직장근무경력이 있으며 현재 재직중인 자
2) 기업체·사회단체의 중견 간부, 고위 공직자 등
3) 사법·행정·외무고시 및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국가고시 합격자

4.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1999. 1. 11(월) ~ 1. 15(금)
나. 장 소 : 본 대학원 교학부(개교 90주년 기념 학술관 1층)

5. 전형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1999. 1. 16(토) 14:00 -
나. 장 소 : 본대학원(개교 90주년 기념 학술관 1층)

6. 특 전 : 공무원, 공인회계사, 교직원, 군인, 조계종 재적승려, 본 대학원 부부 재학생 중 1인 등에 대하여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내규에 의거 장학금 지급

※ 문의처 : 경영대학원교학부 (☎ 260-3106~7)

【산업기술환경대학원(야간)】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학 과	전 공	연 구 분 야
산업과	건설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건축계획, 도시공학, 방재공학
	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 자동차공학
	산업경영	산업공학, 경영과학, 정보시스템, 인간공학, 산업안전관리, 기술경영
	식품공학	식품생화학, 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식품공학 및 기공학, 식품위생 및 안전성, 식품생물공학
	전 자·전기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정보통신, 제어계측, 반도체공학
	컴퓨터공학	컴퓨터시스템, 시스템소프트웨어, 분산처리, 멀티미디어
	화 학·화학공학	공업화학, 재료, 고분자, 생물화공학
	생명자원과 학	응용화학
		식물자원, 산림자원
		응용생물
환경과	환경공학	수질, 대기, 해양, 폐기물처리, 교통
	환경관리	환경계획, 환경정책, 환경경제, 환경정보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9. 1. 11(월) ~ 1. 15(금) 17:00

4. 전형일시 및 장소 1999. 1. 16(토) 14:00 본대학원 교학부

5.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 전
국가기관 및 기업체 재직자는 전형시 우대하며, 공무원, 군인, 전임교직원에게는 장학금 지급

최 고 산 업 경 영 자 과 정

1. 지원자격 : 공,사기업체 임원 및 중견간부, 고위 공무원 및 장교, 개인사업자(학력제한없음)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장소, 전형방법 :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 문의처:산업기술환경 대학원 교학부:(02)260-3602~3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사회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합니다

98학년도 동계방학 외국어교육원 특강

구 분		ENGLISH CONVERSATION BASIC	I	II	III	TOEIC	LISTENING
1차	09.00-11 00	Paul Treadway (강의실 A)	Robert Burgel (강의실 B)	Bruce Dawson (L309)	Paul Sather (L310)	Eric Prochaska (LAB A)	Ross O' Connor (LAB B)
	11:10-13 10	Paul Treadway (강의실 A)	Robert Burgel (강의실 B)	Bruce Dawson (L309)	Paul Sather (L310)	Eric Prochaska (LAB A)	Ross O' Connor (LAB B)
2차	09 00-11'00	Angelika Gatos (강의실 A)	Joseph Schoweiler (강의실 B)	Nicholas Garrison (L309)	Bridget McGrath (L310)	Troy Body (LAB A)	Irene Hanssen (LAB B)
	11.10-13.10	Angelika Gatos (강의실 A)	Joseph Schoweiler (강의실 B)	Nicholas Garrison (L309)	Bridget McGrath (L310)	Troy Body (LAB A)	Irene Hanssen (LAB B)
수 강 료		50,000원				30,000원	40,000원
기 간		1차 '99.1.4~99.1. 22/ 2차 · 99.1 25~2.12(각 3주)					
접 수 처		외국어교육원(동국관 L동 2층)					
접수기간		1,2차' 98 12.1일부터(각 선착순 마감)					

외국어교육원
TEL : 260-3470/1

법인의 일방적인 총장낙점 이후,
두달여가 지난 지금 현재 학내 주체들은
점거·철야농성을 풀고
현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수회는 총장후보추천 선거를
강행해 홍치유교수와 조희영교수를 선출,
법인에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의 상황을 되짚어보고,
총장후보추천 선거에서
당선된 두명의 교수회 총장후보에게
공통질문을 통해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동국발전은 민주주의 복원으로

교수회·법인 기존 입장 고수 … '결자해지' 모습 가져야

"대학의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많은 동국인들은 지난 10월 22일 재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총장 낙점이 이루어지고 난 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 후로 두 달이 훨씬 지난 지금도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풀려지지 않고 있다. 학내 제 주체들은 '무효화'와 '철회'를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고, 법인은 '합법'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90년의 역사를 넘어 1백년을 준비하고 있는 '동국'의 현실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부끄러운 사실임에 틀림없다.

현재 교수회를 비롯한 학내 제 주체들은 그 동안 진행해왔던 점거·철야 농성을 풀고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 직원노조 등은 일단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교수회는 이미 지난해 14대 총장후보 선출선거를 진행, 홍치유(물리학) 교수와 조희영(경영학) 교수를 재단에 추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법인에서는 곧바로 추천서를 반려했으며, 교수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재차 총장을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법인은 교수회의 요구에 대해 "이미 결정된 사안을 부정하는 교수회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법인 권한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교수회는 "총장연임 결정이 학내 전구성원들이 관례와 절차를 무시한 비도덕적이고 비민주적인 처사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학교정상화를 기할 수 있도록 두명의 후보 중 한 사람을 빠른 시일내에 총장으로 선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사태에 대해 교수회와 법인은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각 제 주체들의 입장도 다소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워진 실정이다. 교수회는 선거가 끝난 이후 제 주체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비쳤으나 나머지 제 주체들은 교수회의 선거 또한 법인의 일방적 낙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교수회의 변화된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학내의 여론은 사분오열되고 있으며, 법인의 연임결정 또한 현 상태로 굳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이석종(대학원 임학 박사과정 1학기)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이러한 학내의 갈등과 반목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학내 민주주의, 더 나아가 대학의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의 복원과 함께 우리들의 당면과제인 동국발전을 하루 빨리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생회, 직원노조 등은 법인의 연임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도 이러한 학내 제 주체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현재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학내 민주주의를 복원시켜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다시금 민주화의 기초를 쌓아가는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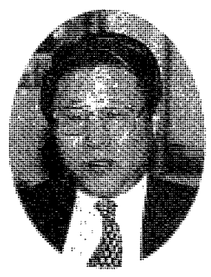
유철주 기자

지난 12월14일 교수회는 학내주체의 우려에도 불구, 통신투표로 총장후보추천선거를 진행했다. 교수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총장 후보 당선자 인터뷰

"교수회칙대로 사태 해결해나갈 터"

홍치유(물리학)교수


조희영(경영학)교수

교수회의 총장후보추천선거로 선출된 홍치유(물리학), 조희영(경영학) 교수를 만나보았다.

-당선소감은.

=홍치유 교수: 착잡하다. 지금까지 88년 학원민주화투쟁이후 시행되어온 두 차례의 총장직선제 선거를 보면 당시에는 높은 투표율에 축제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많이 변질되었다. 학교당국의 방해로 보직교수와 일부 특정대학의 교수들이 투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 선거가 잘 될 수 있겠는가.

조희영 교수: 총장후보로 선출된 것에 기쁘기보다는 향후 이 난국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됐냐 보다는 어떻게 진행됐느냐를 먼저 생각했으며 명분과 사리에 맞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교수로서의 양심을 지켜가면서 토론·협의를 통해 이번 사태를 시정하도록 하겠다.

-이번 교수회 총장후보 추천선거 과정에서 '통신투표'에 대해 학내 주체들의 문제제기가 있는데.

=교수회칙대로 했다. 학교측에 투표함 설치장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할 수 없이 통신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법률적 유권해석을 적용해 총회의 시·공개념을 확대시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했으므로 정당하다.

그러고 이러한 문제제기들이 교수직선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이후 총장낙점철회 투쟁에서 직원노조·학생회 등과 어떻게 연계해나갈 것인가.

=교수·직원·학생 등 3주체 연대가 가장 이상적이다. 현 총장 퇴진 이후 직원·학생 등이 참여하는 총장선출위원회가 구성해 다시 선거를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여긴다.

-법인이나 학교당국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교수회는 현재 두 명의 총장후보를 재단에 알렸으나, 재단에서는 '합법적으로 14대 총장을 뽑아놓았다'라는 명분으로 이를 반려시켰다. 앞으로 교수회 방침대로 추진할 것이다. 현재 이 난국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법인과 현 총장에게 있다. 법인과 현 총장의 적극적 협조자세만이 학교발전을 저해하는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지, 당선자들이나 교수회는 피동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학생회측에서 총장, 교수, 학생, 직원이 학교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운영위원회(가칭)건설을 제안했는데.

=대학운영의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구라 여긴다. 공개행정을 통해 대학은 변화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즉, 어느 한 쪽에 의해 운영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불교종합병원 건립방안은.

=불교종합병원 설립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경제위기시대에 병원설립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 사업계획은 잠정적으로 유보해야 한다. 지금은 IMF관리체제하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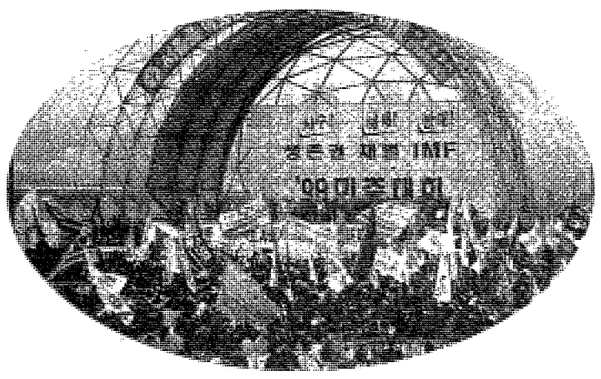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성병원이나 중앙병원만 해도 연간 몇 백억의 적자를 낳고 있다. 병원은 IMF관리체제가 끝난 후 더 모금을 해서 지어야 한다.

박영실·김미경 기자

동대신문 기획광고

99년에는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십시오.

경제주권을 상실하고 맞이한
98년은 참으로 힘겨운
한해였습니다. 잇따른 기업의
부도와 퇴출, 정리해고 등으로
실업자와 노숙자는 증가하고,
이것은 곧 가야는 가정파탄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원, 아동보호소로 보내지고,
끼니를 굶는 아동만해도 10만명에
달합니다.
인권대통령이라고 하는
김대중대통령 하에서도 아직 수많은
양심수들이 0.75평의 차디찬
감옥에서, 철거촌 주민들은
거리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99년에는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대신문사

제1263호 1999년 1월 1일 금요일

동대문학상

東國

시부문 본상 수상작

염 소

박 판 식(국문4)

1

구부러진 못 하나를 주웠다
어디에도 박혀보지 못한 삶이 찾아와
뭉개진 얼굴로 울어 주었다

주머니에 넣고 돌아다녔다

중탕집 창살에 묶여
사람보다 일찍 늙어 가는 염소 두 마리
엽구리를 서로 핥아 주었다

목줄을 굵었다
주인의 눈치를 살펴 겨우 끊어 놓았는데
두 녀석은 뻐끔히 내 눈만 쳐다봤다

주인이 달려와 야단치며 쫓아냈다

2

얼굴도 뵌 적 없는 친척의 무덤 옆에 누웠다
풀어놓은 염소들 울음소리 듣기 좋아
잠이 잘 오고
뜯어먹은 푸성귀마다
바람의 영혼이 뒤엉켜
잘려 나간다

울음소리 멀어져
잠에서 깨면
늙은 내 어머니보다 앞서서
돌아가는
염소 일가족

집을 향해 온몸으로 박힌
저
구부러진
길

3

함양장에서 돌아오는 길
언덕에 풀어놓은 염소들 등짝이
무덤 같다

되새김질하는 억센 무덤들

제13회 동대문학상 입상작 발표

◇ 시부문

본상 '염소'
박판식(문과대 국문4)

가작 '손톱을 깎으며, 추억함'
김동완(문과대 국문학부2)

◇ 평론부문

본상 입상작 없음

가작 '변증법 혹은 대립적 양상'
- '객지'와 '삼포가는 길'의 비교
강봉수(사과대 신방3)

◇ 소설부문

본상 '고원의 서(書)'
최은미(문과대 사3)

가작 '가죽나무'
김상희(사범대 국교2)

◇ 심사위원

시부문 최순열(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 시인)

소설부문 한용환(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 소설가)

평론부문 장영우(문과대 국어국문학부 교수)

시부문 본상 수상 소감

박판식(문과대 국문4)

모두 일나가고 텅 비었다. 변소문을 열어놓고 엉덩이를 까고 쭈그려 앉았다. 떨어진 아카시아 잎들이 분분히 날아든다. 고등학교때 국어선생님이 '국화옆에서'는 똥간에 앉아 쓴 시라고 했던 말씀이 뜬금없이 떠오른다.

지붕위엔 도둑고양이가 뜯어 놓은 통닭 봉지가 펄럭이고 있다. 구름이 문밖으로 천천히 멀어지고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따위가 또렷이 흘러든다. 당선소감을 어떻게 써야하나!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써야겠다는 작자의 변으로 주위 분들에게 인사드린다.

시부문 심사평

자기성찰의 진지성이 돋보여

여전히 시라는 문학양식이 얼마나, 또 어떻게 유효한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적절한 댓거리를 놓치곤 하는 통에 시쓰기를 주저해온 터에, 투고된 상당한 시편들을 읽어내면서 내심 시가 우리의 삶의 한 단면들을 충실히 응축해 보여주는 본래의 미덕을 확인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었다. 사실 요즘 청년적 기질과 그들의 일상적 삶의 양태가 그렇게 시적 정서를 충일하게 하는데 가깝게 다가가고 있지 않다는 편견을 굳혀 왔던 것이다. 그런데 몇몇 치기 넘치는 작품 외에 많은 시편들이 정통적인 시적 문법에 충실하면서도 새로운 발성법과 언어 운용을 시도하고 있는 작품들이 두드러졌다. 시를 제작하는 시인의 태도는 개인의 의식에 기반하는 것인 듯 싶지만 실상은 자신이 호흡하고 있는 삶의 역사적 맥락에서 추출된 의미의 구체화 작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다. 비록 완성도는 있으나 진부하고 상투성이 짙은 작품을 배제하고, 과잉된 현실 응전 의욕이나 자기 분열적 의식에 매몰될 여지를 극복하고 있는 다수의 작품을 일단 골랐다.

게중에서 '염소' 외 8편, '진눈깨비' 외 3편, '손톱을 깎으며, 추억함' 외 4편, '아버지 우물 속으로 들어가다' 외 1편을 추려놓고, 한숨 돌리며 생각한 끝에 습작의 숙성도와 새로운 자기 목소리의 형상화의 노력과 자기 성찰의 진지성이 돋보이는 2편을 수상작으로 하기로 하였다. 나머지 두 작품에 대한 각별한 아쉬움을 굳이 밝혀두면서, '염소'(박판식 · 국문4)를 본상으로, '손톱을 깎으며, 추억함'(김동완 · 국문학부2)을 가작으로 정하였다. 수상은 완성의 결과가 아니라, 반성의 단초를 삼아달라는 주문이라는 사족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최 순 열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 시인

소설부문 심사평

경험의 '반성적' 재현 아쉬워

응모된 13편의 작품들을 읽고 우선 떠올리게 된 것은 요즘의 문학도들은 소설이 우리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재현하는 기품있는 이야기의 형식이라는 사실을 냉소하고 있는건지도 모르겠다.

김상희(국교2)의 '가죽나무', 이재건(신방2)의 '비디오를 보는 남자', 최도영(국교3)의 '요람을 흔들면 아기는 운다'는 모두 이야기를 진술하는 능숙한 솜씨를 과시하고 있으면서도 삶에 대한 반성적이며 문제적인 시각을 모색하는 일에는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속기를 걷어내는 일에서 실패하고 있다. '가죽나무'를 가작으로 뽑는 것은 그중 속기가 덜하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최은미(사3)는 응모자중 발군이다. 두 편을 투고했는데 '섬에 빠지다'에는 글쓴이의 뛰어나고 무르익은 기량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다. 특히 문장이 압권이다. 치명적인 약점도 없지 않다. 이처럼 튼튼하고 감칠맛나는 문장을 구사하면서도 정작 이야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고원의 서(書)'는 문장에서는 앞의 작품에 못 미친다. 이야기를 너무 억제하고 숨긴 탓에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빈곤해져버렸다. 그러나 아름답고 깊이도 느껴지는 소설이다. 이 작품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배려한 끝에 본상에 올린다.

한 용 환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평론부문 심사평

새로운 관점으로 자기 논리 증명해

문학평론 부문에 응모된 작품은 두 편에 불과했지만, 두 글 모두 단순한 독서감상문이나 보고서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 평론이나 연구에 기대지 않고 자기의 시선으로 작품을 바라보려는 투지가 엿보여 반갑다.

'키취의 페달을 밟고 돌아온 최영미'(노기선 · 영문3)는 최영미의 두 번째 시집 '꿈의 페달을 밟고'에 대한 평론이다. 노기선 군은 이 시집에 실린 작품이 대체로 함량미달임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작가의 오만과 시인으로서의 자질 부족에서 연유하는 것임을 통박하고 있다. 하지만 작품 분석의 치밀함이 다소 부족하고 사용된 어휘가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어떤 작품을 평론의 대상으로 선택하느냐도 평자의 능력에 속한다. 평론거리도 안 되는 작품을 난도질 할 게 아니라 좋은 글을 천천히 저작하는 것이 생산적인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변증법 혹은 대립적 양상- '객지'와 '삼포가는 길'의 비교'(강봉수 · 신방3)는 황석영의 대표적 단편을 비교한 글로, 관점의 새로움과 자기 논리를 증명해 가는 뚝심이 돋보인다. '객지'가 독자에게 구체적 이해를 제공하는데 신경을 쓴 나머지 미학적으로 다소 미흡하다면 '삼포가는 길'은 그와 반대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차분히 입증하는 솜씨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자신이 설정한 도식을 너무 의식한 것이라든지 어휘 선택에 다소 문제가 있어 가작으로 뽑는다. 더욱 노력하길 바란다.

장 영 우
문과대 국어국문학부 교수

시부문 가작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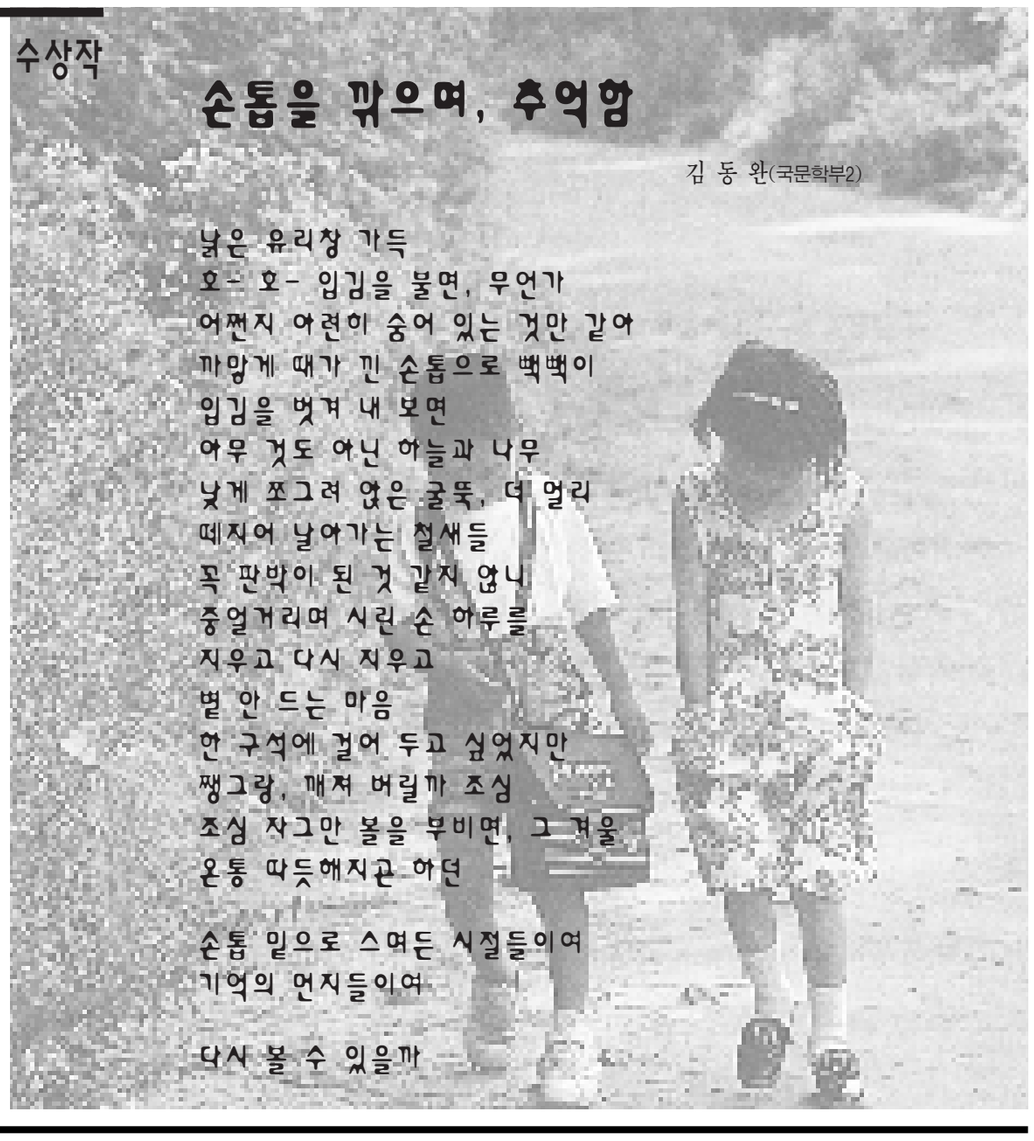
손톱을 깎으며, 추억함

김 동 완(국문학부2)

낡은 유리창 가득
호- 호- 입김을 불면, 무언가
어쩐지 아련히 숨어 있는 것만 같아
까맣게 때가 낀 손톱으로 빽빽이
입김을 벗겨 내 보면
아무 것도 아닌 하늘과 나무
낮게 쪼그려 앉은 굴뚝, 더 멀리
떼지어 날아가는 철새들
꼭 판박이 된 것 같지 않니
중얼거리며 시린 손 하루를
지우고 다시 지우고
벌 안 드는 마음
한 구석에 걸어 두고 싶었지만
쨍그랑, 깨져 버릴까 조심
조심 자그만 볼을 부비면, 그 겨울
온통 따듯해지곤 하던

손톱 밑으로 스며든 시절들이여
기억의 먼지들이여

다시 볼 수 있을까



제13회 동대문학상 수상작

소설부문
본상 수상작

고원의 서(書)

사이에서, 이파리가 내리고 있었다.
하늘을 감고 있던 그것, 진공 속에서 너울대던 넓디 넓은 이파리가 바람을 감싸안고 내리기 시작한다. 유유히 가라앉는 이파리. 그것이 있던 자리, 하늘엔 붉은 여운이 번져간다. 그리고 강, 모든 것이 날숨을 멈추고 눈을 감은 채로, 내리고 있는 이파리의 기운을 마신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해가 지듯이, 어스름이 내리듯이, 그렇게 이파리가 내린다. 낮과 밤의 사이, 이쪽과 저쪽의 사이에서 그렇게 이파리가 내린다.

점점 깊숙히 감지되는 이파리의 기운. 저만큼서, 이제 이만큼, 점점 더 가까이, 바로 닿을 듯 말 듯, 내려앉은 이파리가 포르르, 물비늘을 만들고 부들대는 강 위로 까마귀떼가 날아오른다.

검고 검은 그것들이 공중을 뒤덮자 그 밑에서 물컹, 들개가 짖고 그것이 딛고 있는 모래톱 수렁에는 유골들이 쌓여있다. 강 가운데의 질퍽한 모래톱. 물비늘이 된 이파리가 모래톱을 향해서 작아지고 그것은 점점 오그라들어 늪에 묻힌 유골 속으로 깊숙히 들어간다.

그렇게 이파리가 내린 강, 그 강이 발원한 곳에 고원이 있다.

아주 높은 고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솟아오르는 고원. 대륙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통과하지 못하는 고원. 고원에 부딪쳐 흐름이 변해버린 바람. 그 바람 때문에 승해진 습습한 공기 덩어리. 그 공기 덩어리 때문에 범람하는 강, 내리붓는 폭우. 범람과 홍수 때문에 생긴 강의 모래톱. 흘러든 물 때문에 염도가 낮아진 바다.

그 바다가 보이는 곳이 있다. 아주 먼 곳에 있는 유골의 체취가 조금은 흘러들었을지도 모르는, 바다.

그 바다 속에는 숲이 있고 숲 속에는 알루미늄 창이 있고 그 창 안에는 다시 고원이 있다.

고원과 이어진 대륙의 한 끝, 고원과는 아주 먼 먼 그 곳에, 싱거운 바다가 있고 바다 속에 숲이 있고 숲 속에 알루미늄 창이 있고 창 속에 고원이 있고, 그 속에 또.

팔월 초인데도 통일호 열차 안은 으스스 한기가 돌았다. 서늘하게 번들거리는 파란색 의자 때문에 하진은 몸이 더 오그라들었다. 뿌연 하늘에서 빗방울이 날아와 창에 덜컹덜컹 부딪친다. 남방을 벗어 몸 위에 덮고는 목까지 끌어당겼는데도 얼굴살이 쭈뼛해왔다. 도들도들해진 다리를 맞비비다 서로 포개 놓으며 하진은 다시 눈을 감았다. 온몸이 척척히 젖는 듯 하면서 습한 기운이 코에 붙어온다. 빗줄기는 점점 더 세차져 창문을 타고 주룩주룩 흘러내린다. 하진은 입으로 숨을 흠뻑 들이쉬었다가 털썩, 놓아버렸다.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그 진동의 여운만큼이나 또 깊숙히 저려온다. 제발, 제발! 잠이 들기를 청하며 하진은 눈을 꾹, 힘주어 감았다.

제발 거기에 그대로 있어 주기를.

이번 역은 청도, 청도 역입니다. 팔에 선뜩 와 닿는 찬 기운에 하진은 눈을 떴다. 너댓명이 자리를 찾으며 선반에 짐을 올리고 있었다. 모두들 허벅지까지 바지가 젖어 있다. 바람까지 부는 모양이다. 의자가 울리도록 밀치며 와 앉은 옆의 여자는 앞 의자 모서리만 쳐다보며 숨을 몰아쉬고 있다. 여자 몸이 내뿜는 김 때문에 하진의 안경에까지 습기가 들어찼다.

소름처럼 돋은 점무늬 브라우스가 흐늘거리면서 화장기 없는 여자의 울퉈한 얼굴을 더 뻑뻑이 보이게 했다. 참 바싹도 말랐구나. 중년의 살들이 피로하게 오그라져 있다.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자 얇은 브라우스 속에 불룩이 늘어진 뱃살이 울렁였다. 몸의 모든 살들이 배로만 몰린 듯 마른 팔 아래 늘어진 뱃살이 일렁이자 그녀의 몸도 거기에 따라서 힘없이 너울거렸다.

차내에 들어찬 쉬큼한 냄새에 하진은 창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까맣게 때가 낀 화분이 죽 늘어서 있고 사람들은 움츠리며 우산을 펴들고 있었다. 바람 섞인 비 속에서 사람들은 위태위태 발을 떼고 있다.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부산. 색색의 우산이 하나로 흐리게 뭉뚱그려진다. 제발 거기에 그대로 있기를. 그래서 나를 보아 주기를. 부산을 떠올리자 고여드는 눈물에 울컥울컥, 기차는 흔들리고 사람들은 저만큼 뒤로 흘러가고 있었다.

"망할 년."

하진이 사이다를 건넨 뒤부터, 삼평에서 산다는 점무늬 옷의 울툭한 여자는 트름하듯 이 얘기 저 얘기를 토해내고 있었다. 앞의자 모서리를 보며 중얼거리는 여자의 초점없는 눈이 퀴퀴하게 흐물거렸다. 그 냄새가 그대로 열차칸에 스며든다.

"태종대 바다에 뿌렸지. 그렇게두 살고 싶다구 발악 발악을 하더니만. 썩을 것. 끝까지 부릅뜨던 그년 붉어터진 눈깔이… 여길 봐도 저길 봐도 하두 굴러다녀서."

여자는 갑자기 딸꾹질을 시작한다. 열차가 급정거한 것처럼 상반신을 뒤로 당기며 끅끅거렸다. 죽은 사람이나 떠난 사람을 회고할 땐 언제나 그렇듯 여자는 딸에게 못해줬던 일들과 자책에 가까운 원망을 줄줄이 늘어놓으며, 한숨 한 번 쉬고 딸꾹질 한 번 하고 또 사이다 한 모금 들이키다 욕 한 번 하고 하면서 딸에 대한 안타까움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줄줄 흐르던 빗물이 이젠 빗방울이 되어 창문에 점점이 부딪친다. 좀 잦아든걸까. 하진은 부옇게 습기찬 창문을 손바닥으로 문질렀다.

"겨울이면 벌겋게 얼굴이 얼어선 허연 때가 쩍쩍 갈라졌지. 그렇게 골골거려도 보약 한 첩 못해 먹이구. 태종대에다 뿌리고 태종사에서 재(齋)를 지냈지. 그렇게두 살구 싶어 발악 발악을 하던 그년 눈깔이."

태종대에도 절이 있었던가. 그 바다 한가운데에. 탁. 탁. 여자는 습관인지 왼쪽 손목에 찬 단주를 계속 잡아당겼다. 만(卍)자가 새겨진 향나무 단주. 단주알 부딪치는 소리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한다. 그러고 보니 나무 젖은 냄새와 눅근한 향내가 나는 것도 같다. 하진은 반사적으로 자신의 팔목을 내려다봤다. 하늘빛이 연하게 도는 옥단주. 한 알, 한 알, 만져본다. 다시 시름하게 고여오는-. 흐릿해지는 앞의자에 고개를 저으며 하진은 침을 꿀꺽 삼키고는 헛기침을 한 번 했다.

단주를 잡아당기던 손으로 턱을 쓱 문대는 걸 보니 여자는 아마도 조금 울었던가 보다.

부산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비가 멎었는지 창틀에 괴어있던 빗물이 식은땀처럼 주룩 흘러내린다.

"범어사엘?"

"……네."

여자가 신발을 발판에 비벼댄다. 바싹 마른 허벅지의 진동이 하진의 다리에 전해진다. 몸이 스르르 내려앉으면서 의자 깊숙히에 묻혀버리는 듯, 또 울렁. 하진은 고개를 의자 등판에 붙이고 눈을 감았다.

네, 범어사에 갑니다. 제발 지금 거기에 있기를, 그래서 나를 보아 주기를 바라는 사람을 찾아서. 머리칼 하나 없이 문득 나타나서 씨익 웃고 떠나기 전의 모습, 내 머리칼을 쓸어주며 가까이서 숨결을 뿜을 줄 알았던 때의 모습으로 그를 되돌려 놓기 위해서. 행자승이 되어 있을 그 사람의 말쑥한 두 눈에 내 모습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했던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듣기 위해서, 아니 모든 이유를 묵살한 채 손목을 끌고 올라오기 위해서, 네, 그래서 범어사에 갑니다.

"거기까지 불공을 드리러 가는 것 같진 않구, 누구 아는 사람이라두 있수?"

하진은 숨을 한 번 내리쉬었다. 목덜미가 후끈해온다. 창문이 시리도록 말끔하고, 이제 부산이다.

부산역에 내리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다. 역 앞에 낮게 솟은 산과 그 밑의 집들이 착착이 젖고 있다. 선뜩선뜩 묻어오는 빗방울에 하진은 움찔, 몸을 떨었다. 미세한 현기증이 일면서 다리가 후들거려온다. 역 한쪽에선 학생인 듯한 몇몇이 배낭을 모아놓고 시계를 보며 떠들고 있고 가방으로 머리를 가린 사람들이 택시를 잡으러 후다닥 뛰어간다. 간간이 들리는 부산 사투리가 비릿하게 코끝을 돌다간다.

하진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멍하니 바닥을 쳐다봤다. 도돌이 내리치는 비와 섞여 발들이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또박거리는 구두소리, 칙칙 끌리는 센들, 절벅절벅 운동화. 그 무수한 발들은 일말의 지체도 없이 성큼성큼 하진의 앞을 지나쳐간다. 발들이 내딛는 기꺼운 보폭이 하진에게 흙방울을 튀기면서 저만큼씩 멀어진다. 하진은 자신의 발을 얽고 있는 신발 끈에 숨이 막혔다. 왼쪽발을 간신히 내딛어 본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더 이상 오른발도 움직여지지 않는다. 다른 발자국들 소리만이 철퍼덕 철퍼덕 귀를 밟아올 뿐이다.

"아가씨, 왜 그러구 있수?"

"……."

"태종사에 한 번 안 가볼라우?"

"……."

삼평 여자가 손목을 확 잡아끈다. 비가 안경에 두둑이 내리치고 신발이 치익 끌린다. 갑자기 더 쏟아붓기 시작하는 비에 등바닥이 후줄근히 젖어 내린다. 여자가 끌고 간 역 한쪽의 회색 봉고차엔 네 다섯 명의 사람들이 우산을 털며 수선스럽게 타고 있었다. 여자가 먼저 오르면서 하진에게 어여, 손짓을 한다. 회색 차체엔 하얀 페인트로 휘갈겨 써 놓은 '히말라야 익스프레스' 라는 글씨가 보인다. 획 아래로 흘러내린 페인트 물이, 비에 번져서 그런 것처럼 묽게 번들거린다. 하진은 비를 맞고 서서 한참을 쭈뼛거리다가 여자의 어여,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아 반사적으로 후다닥, 차에 올라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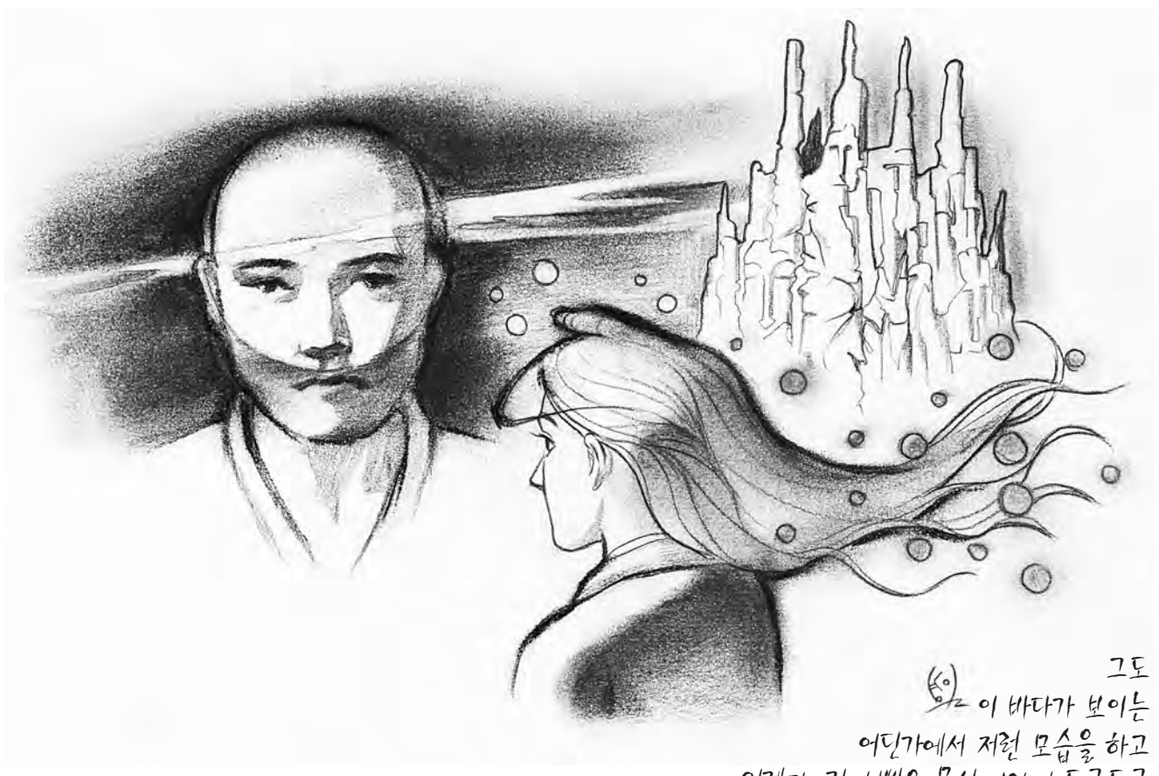
차 안의 공기는 텁텁하고 건조했다. 밖에서 볼 때와는 달리 차 안은 꽤 넓고 생각보다 사람들도 많이 타고 있었다. 하진은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룩덜룩한 비닐이 깔린 의자는 시멘트처럼 딱딱했고 창문은 들숨 쉬기가 거북할 정도로 먼지가 앉아 있어 잘 열리지 않았다. 차 앞유리는 자잘한 금이 가 있어 위태했고, 차 뒤 편의 의자에 매달아 놓은 스페어 타이어는 금방이라도 앞으로 굴러올 것 같이 불안하게 덜렁거렸다.

하진은 모래 입자가 가슴에서부터 차오르는 것 같아 숨 쉬기가 힘들었다. 밖의 울퉁한 광장엔 온통 컬컬한 모래자갈뿐이었다. 그 모래자갈을 바퀴로 굴리며 광장엔 여러 차들이 붕붕거리고 있었다.

캐시미르의 각 지방으로 간다는 그 많은 차들 중에 하진이 이 차를 타게 된 것은 묽은 페인트 글씨가 뿜어내는 강한 흡인력 때문이었다. 이 차를 타면 히말라야 뒤쪽에 있는 티베트 고원에 갈 수 있으리라.

캐시미르의 동쪽으로 팔십 킬로미터를 가면 산악 지대가 있어. 거기가 히말라야의 서쪽 끝이야. 그리고 그 산맥을 사백 킬로미터쯤 넘은 곳에 티베트 고원이 있어. 미르기가 그러지 않았던가. 사백 킬로미터. 하진에겐 감이 안 오는 아득한 거리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미르기를 찾아 나설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차는 연신 클랙슨을 울려댔다. 그것이 하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리였다. 캐시미르에서 티베트로 물건을 나르는 듯 보이는 짐꾼들은 모든 말을 소리



그도 이 바다가 보이는
어딘가에서 저런 모습을 하고
있겠지. 길게 뻗은 목선 아래에 동글동글
염주알을 매달고, 불거진 목울대를 울컥이며
새벽 예불을 외고, 파르란 고무신을 바투 신고
안개를 들이마시겠지. 그러다 부채살이 꺾어질 만큼
바람이 불어오면 나를 생각하겠지, 나를 떠올리겠지. 그래,
그는 지금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를 지르면서 했고 가사(袈裟)를 둘러멘 비구승들은 말이 없었다. 귓속을 웅웅거리는 이것은 티베트어인가. 마른 모래와 자갈이 굴러가는 것 같은 어감은 주름이 깊게 패인 붉은 사람들의 머리결 만큼이나 써럭써럭했다.

하진은 모든 것이 낯설고 피로했다. 목이 마르다. 공중에 흩어지는 모래바람 뿐이다. 이 차를 타고 이 사람들과 이 높은 곳을 며칠을 달려야 하나. 그렇게 달려간 곳에서 나는 왜 미르기를 만나야 하나. 그렇게 달려간 그 곳에 과연 미르기는 그대로 있을 것인가. 양말 속으로 굴러들어온 모래알들이 살갗을 부벼댔다.

하진은 몸을 추스르며 버스 안을 둘러봤다. 스무명 남짓의 사람들이 제각각의 표정으로 앉아 있다. 훅 불면 먼지만 수북이 피어오를 것 같은 풍경. 짐을 메고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빼고는 모두 혼자인지 별 말이 없다. 뭔가를 우적거리며 씹어먹는 사람도 있고 큰 가방을 무릎에 올려 놓은 채 그 위에 축 엎드린 사람도 있고 카메라 렌즈를 손질하는 사람도 있다. 다만 하진처럼, 홀쭉한 가방 속에다 부스스 흩어질 것만 같은 집요함을 꾸역꾸역 밀어넣은 사람은 없는 듯 하다. 금이 간 운전석 창문에 언뜻 낯익은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하진은 피식 웃음이 났다. 이 질리도록 낯선 곳에서 유일하게 낯익은 것이 인도의 골목에서 이곳까지 넘어왔을 헐리우드 배우의 사진이라니. 하진의 낮은 웃음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앞의 여자가 힐끔, 뒤를 돌아본다.

움푹 패인 눈동자 깊숙히 붉은 먼지 기름이 끼었다. 그 속에는 무언가를 꾸역꾸역 밀어넣은 것 같은 팽팽함이 있다. 불거진 광대뼈 때문에 마름모꼴로 보이는 얼굴, 여러 갈래로 잘게 땋아서 둥글게 말은 검은 머리, 얼굴색보다 명도가 옅은 입술은 여자가 얼굴을 돌린 다음에야 여운처럼 잠깐 스쳐갔을 뿐이다. 다만 꾸역꾸역 응축된 단말의 인상, 그것. 어딜가나 사람들은 다 비슷한 냄새가 난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유일한 여자다. 아니, 낯선 사람에게서도 자신과 비슷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낯선 생각이 들게 하는 여자다. 하진은 다시 머리속이 멍해졌다.

계속 클랙슨을 울리고 날카로운 엔진 소리를 내며 광장을 돌던 차가 출발하기 시작했다. 힘을 뺀 채로 의자에 몸을 기대자 고개가 덜컹, 꺾여졌다. 이제부터 나는 이 곳에서 티베트 고원까지 가기 위해, 동쪽 히말라야로 난 긴 길을 가야 한다. 전 길이가 사백여 킬로미터이고 해발 삼사천 미터의 산맥이 몇 개나 되는 이 길을 나 혼자 견뎌야 한다. 하진은 써럭한 가슴을 지긋이 눌렀다. 이렇게 가는 곳에, 그 고원에 그것은 있을 것인가.

모래와 자갈만 보이는 경사면을 한참 오르던 차의 창 밖으로 바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빗금이 간 거대한 바위 위에 푸른 이끼가 살짝 덮여 있고 그 사이로는 눈인지 구름인지 모를 하얀 것이 뭉클거리고 있었다. 뾰족한 바위벽이 그대로 차체를 덮쳐올 것 같아 하진은 현기증이 일고 호흡이 가빠왔다. 이마를 쓸며 하진은 손가락에 침을 묻혀 창문을 문질렀다. 쌓여있던 먼지가 손의 땀과 섞이면서 창문이 더 흐려져 밖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진은 답답한 마음에 아예 손바닥을 펴서 창문을 써럭써럭 문질렀다. 손바닥 가죽이 벗겨질 것처럼 아려온다. 한참을 문지르자 부연 창문 사이로 파란 이끼들이 주루룩 흘러내렸다. 하진은 젖은 손바닥을 호호 불었다. 습기를 닦아내자 창문에 간간이 부딪치는 빗방울이 보인다. 그 사이로는 물기를 머금은 바다가 습습하게 차오른다. 영도 다리를 지난지는 한참인 것 같았다. 좁은 의자를 펴고 앉은 하진의 머리가 차가 크게 움직일 때마다 계속 차 천장에 부딪쳤다. 좁은 차내는 꽉 들어찬 사람들의 입김, 흘러내리는 땀, 젖은 옷에서 피어오르는 김 때문에 포화 상태가 된 것 같았다.

계속 태종대 바다를 끼고 돌던 차가 멈춘 곳은 깊은 산사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숲이 우거진 곳이었다. 그 때까지 계속 운전석 의자의 모서리만을 보고 있던 삼평 여자가 퍼뜩, 하진은 봤다.

"여기가 태종사라는 절이라우. 볼 거리가 많은 절은 아니지만서두-. 목탁 소리보단 뱃고동 소리가 죽이는 절이지."

숲이 우거진 초입에 '태종사' 라고 씌어진 작은 돌비석이 보였다. 빽빽이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돌을 박아놓은 큰 길이 나 있고, 가지 사이로 내리는 비가 바람이 불 때마다 일정치 않은 굵기로 후둑거렸다.

그 곳은 바다 속의 숲, 숲 속의 절이었다.

숲길을 조금 올라가니 요사채인 듯한 건물이 왼쪽으로 모여 있고 건물 맞은편엔 갈색 흙 위로 고추와 상추가 가지런히 올라와 있었다. 비가 잦아들면서 자잘한 채소들이 말끔히 눈에 들어왔다.

"아이구마, 삼평 보살님 아입니꺼! 퍼뜩 오이소."

"오늘 무슨 준비하우?"

"김치도 하고예 사십구재도 안 있심니꺼. 어여 와가 간좀 보이소."

여자는 빨간 고무장갑을 낀 아줌마들과 키득거리며 수도꼭지가 빼꼼히 보이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웃음 소리 섞인 양칼질 사투리 너머로 음식 냄새가 분주히 풍겨나왔다.

채소밭 옆으로는 좁은 돌계단이 이어져 있었다. 빽빽한 나무숲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본당이 있는 것 같았다. 소복을 입은 여자가 제사용으로 담은 과일을 들고 부엌에서 나와 돌계단으로 올라간다. 곧 사십구재가 시작되려는 모양이었다.

"배가 단다이 불렀제. 쌓인 호강 걷어차고 지가 와 죽노? 누군 더 살지 못해서 안달이구만."

소복 여자의 뒤로 수군거림이 새어 나왔다. 하진은 돌계단을 하나씩 밟으며 올라갔다. 울퉁이 박힌 돌 사이로 풀들이 돋아나 있고 군데군데 굵은 지렁이가 꾸물대고 있었다. 나무 등걸에서 비에 절은 푹푹한 냄새가 풍겨나온다. 비는 멎었지만 숲을 감싸고 있는 안개 입자가 보일 듯 말 듯 하진의 몸 깊숙히 젖어들었다. 비에 젖어 색깔이 짙어진 까만 돌들을 밟으면서 하진은 자신의 몸이 발바닥부터 짙어져 오는 것을 느꼈다.

올라가니 산을 뒤로 한 본당 건물과 소나무로 둘러쌓인 뜰이 보였다. 절 양쪽에는 연보라색 수국이 뭉긋뭉긋 피어 있었다. 습기에 감싸인 수국의 일렁임을 타고 뚜우-, 뱃고동 소리가 울려왔다. 본당은 특이했다. 나무 문살의 창호지 대신 갈색 테두리가 선명한 알루미늄 창이 전면을 차지하고 있었다. 말쑥한 유리 안으로 불상과 대좌가 고스란히 내비쳤다.

하진이 딛고 있는 뜰, 그것을 둘러싼 나무 사이로 바다가 묽게 비쳤다. 이 절 바로 밖이 태종대 바다라고 했지. 나무의 가지 사이로 비치는 바다가 조각처럼 붕떠 이물스럽게 다가왔다. 빽빽한 숲 사이

11면으로 계속

제1263호 1999년 1월 1일 금요일

제13회 동대문학상 수상작

10면에서 계속

로 보이는 그것이 바다라는 게 하진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젖은 나뭇잎을 흔들면서, 진한 나무 등걸을 긁으면서 뚜우, 분명 뱃고동 소리는 울리고 있었다.

바다 속의 숲, 숲 속의 절, 목탁 소리보다 잦은 뱃고동 소리,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를 그 묘한 울림의 고동이 알루미늄 창을 두드리는 그런 절.

멍하니 바다를 보고 있던 하진은 선뜩한 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봤다. 법당 안에서 사십구재 준비를 하는 듯하던 한 스님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다. 하진은 갑자기 죽 돋는 소름에 몸을 떨며 합장할 생각도 못하고, 언제부터인지 비구들만 보면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하는 무의식적인 습관에 몸을 내맡긴 채 스님의 동작선에 시선을 풀어놓고 있었다.

승복 깃 위로 곱게 뻗은 목선. 발을 바꿀 때마다 스님의 고의 부딪는 소리가 서걱서걱, 천둥 소리처럼 울린다. 쌉쌀한 냄새가 바람에 묻어온다. 향내일까? 아니, 머리 냄새 같아. 하진은 온 몸이 싸아해졌다. 시간이 부채살처럼 촤악 퍼져 그와의 공간으로 돌려놓는다. 그도 이 바다가 보이는 어딘가에서 저런 모습을 하고 있겠지. 길게 뻗은 목선 아래에 동글동글 염주알을 매달고, 불거진 목울대를 울럭이며 새벽 예불을 외고, 파르란 고무신을 바투 신고 안개를 들이마시겠지. 그러다 부채살이 꺾어질 만큼 바람이 불어오면 나를 생각하겠지, 나를 떠올리겠지. 그래, 그는 지금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 범어사에서 나를, 그는 …나를, 지금 범어사에 있는 그는 나를 알아볼까. 나를 떠나 범어사로 간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 나, 그 곳에 가야 하는데. 그 곳에 가서 그를 만나야 하는데, 왜 여기 이러고 있는걸까.

넋을 놓고 있는 하진의 어깨를 갑자기 매운 손바닥이 철썩 내리쳤다. 하진은 멍하니 늘어졌던 몸을 추스려 세웠다. 사람들이 법당으로 분주히 음식을 나르고 있다. 턱이 당겨지자 하진은 비로소 자신이 고개를 젖히고 턱을 놓고 있었다는 게 느껴졌다. 귀밑까지 소름이 돋아 올랐다.

"아이구, 아가씨 여기 올라와 있었네. 찾았잖우."

"절이 참 아담하네요."

바람이 돌계단을 올라선 삼평 여자를 훑고 지나간다. 바람에 의해 착 드러난 여자의 몸이 숨에 차서 울툭거렸다. 몸 안의 물기가 밖으로 다 빠져나간 듯 여자는 얼굴이 꺼칠하고 퍽퍽해 보였다. 바람이 휙 불자 그녀 뒤의 나무에서 후두둑, 물방울이 떨어진다.

"내 참, 아 여름이 됐음 화끈거리면서 더워얄 것 아니야. 이거야 원 입추두 아니구, 거 드럽게 춥네."

"산인데다가 바닷 바람까지 불어서 그럴거예요. 해가 날 만두 한데……."

"아 해 나믄 뭐해. 팔짜 드센 년 찌그러진 이마빡 밖에 더 보여?"

색지와 연꽃을 든 사람들이 법당으로 들락거린다.

"우리 딸년이 저기 저 돌에 앉아서는… 망할 년. 하구 싶은 게 뭐 그래 많다구, 연신 중얼중얼…. 그렇게두 살구 싶어 환장을 했구만…."

삼평 여자가 카악 하며 침을 뱉는데 그 앞으로 옷가지를 들고 지나가던 소복 여자가 움찔, 이 쪽을 본다. 부은 눈이나 거친 피부와는 대조적으로 빗살이 그대로 내린 머리가 뒤로 가지런히 묶여져 있고 물이 흐르듯 하얀 견이 매끈하다.

"저어, 가족 중에 사십구재가 있나부죠?"

소복 여자의 시선이 무안해 하진은 얼결에 말을 건넸다. 여자는 하진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계속 삼평 여자만을 쳐다봤다.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눈가에 꽉찬 눈물이 울럭울럭 쏟아져나올 것 같다. 소복 여자는 조청처럼 일렁이는 눈을 삼평 여자에게서 찐덕히 떼며 멍하니 벌어져 있던 입술을 옴칠거렸다.

"오늘이 …지 딸네미 사십구재 …막잽니더."

여자는 고개로 인사를 하고는 법당 쪽으로 치적치적 들어가다간 끝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인 듯한 사람에게 쓰러지듯 안겼다. 그리고는 아마도 여러번 되풀이 했을 딸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는다. 여자의 휘청거리는 몸짓에 하진은 속이 울렁이면서 현기증이 일었다. 듣고 있던 삼평 여자는 카악, 또 침을 뱉고는 발로 써억 문댔다.

여자의 울부짖음은 습기를 타고 날아와 하진의 머리를 휘저었다. 하진은 귀가 먹먹해지기 시작했다. 울렁거리는 속이 답답해 발을 옮기는데 밑으로 물큰한 것이 밟힌다. 그것의 느낌은 발바닥을 뚫고 올라와 종아리 알을 세우며 급시에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하진은 뒷머리가 불끈해지는 동시에 밑을 내려다봤다. 한쪽 끝이 탱탱히 밟힌 굵다란 지렁이가 센들끈 밖으로 나와 있는 하진의 발가락을 얽으며 요동을 치고 있었다. 그 미끌한 엉겨듦에 하진은 기겁을 하며 발을 털었다. 한쪽 몸이 터진 채로 젖은 흙을 휘몰고 있는 지렁이를 보자 울렁이던 속이 뒤틀리면서 그대로 안의 것이 입 밖으로 터져나왔다. 주황빛 구토물이 미처 막을 새도 없이 입과 코에서 동시에 터져나와 바닥으로 흘렀다. 한 번 시작된 구역질은 좀처럼 그치기가 힘들었고 고막이 터져버릴 듯 온갖 소리들이 윙윙거렸다. 여자가 급히 하진의 옆으로 와 닦을 것을 주면서 뭐라고 말을 한다. 아마도 하진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말 같았다.

시큼한 내가 올라오면서 구토가 멎고 여자가 건네준 천으로 얼굴을 닦고 나자 하진은 몸이 그대로 비틀려버린 듯 힘이 빠졌다. 여자는 바닥에 있는 하진의 구토물에 종이를 덮어놓고는 하진을 다시 기웃기웃 살폈다. 하진은 목례로 인사를 하고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로 고개를 젖혔다. 앞 여자의 굵고 질겨 보이는 검은 머리털이 부옇게 덜컹거렸다. 여자는 아무래도 하진이 걱정되는지 고개를 돌려 보고 또 보고 한다. 광대뼈 옆으로 땋아서 말은 머리가 목에 걸은 염주알처럼 늘어져 있다. 그렇게 해 보라는 것인지 여자는 입술까지 움직거리면서 침 삼키는 시늉을 했다. 모아 모아서 침을 삼키자 먹먹했던 귀가 좀 뚫리는가도 싶었다.

고도 때문에 생기는 몸의 이상이 이렇게 갑작스럽고 심하게 나타날 줄이야.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 하진은 자신의 무작정에 힘이 빠졌다. 가방에 여권, 지갑, 시계만 넣고 무작정 떠난 길. 왜 두통약, 소화제 하나라도 챙겨올 생각을 못 했을까.

창밖으로는 모래 바위가 빗금을 그으며 계속 치솟고 있었다. 얼핏 내려다보자 바로 아래가 절벽이라 하진은 다시 머리가 아찔했다. 모직을 들쳐멨던 한 남자는 운전사를 향해 불안스런 호통을 치고 있고 한쪽의 비구는 눈을 꾹 내리감은 채 염주알을 돌리고 있고 등산화를 신은 사람은 연신 카메라를 눌러대고 있었다. 이 절벽에서 차가 그만 굴러버릴 것 같아 하진은 고원과 미르기가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하진은 목이 말랐다. 아무리 건조한 곳이라고 해도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고 권태로울까. 끝없는 자갈, 모래, 바위. 조그만 활엽수 잎 하나라도 볼 수 있다면 모든 고산병이 사라질 것 같았다.

몸에 일어난 이상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잠잠해지는가 싶던 머리가 다시 후끈거리기 시작하고 온 몸이 부풀어 터질 것 같아 하진은 몸을 지탱하기가 힘들었다. 심장 울리는 소리가 빠르게 요동치며 귀 밖으로 둥둥거렸다. 얼마나 계속 달려야 하는 것일까. 가슴을 누르고 있던 하진의 손등으로 무엇이 뜨끈 떨어져 내린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젖히자 미끈한 것이 목을 타고 넘어간다. 코피였다. 하진은 이 모래자갈과 바위 속에서 그것이 유일하게 선명한 색이라고 생각하면서, 먼 곳으로부터 불어온 고지대의 바람에 자신의 선혈을 흘뿌린다는 것에 아득해지면서, 뭉게뭉게 내려앉은 구름이 이 피를 덮친다고 느끼면서 그대로 정신을 놓아버렸다.

소설부문본상수상 소감

최은미(문과대 사3)

양치를 했다.

남쪽의 겨울볕에 얼굴이 탄 채 돌아와 내 방 천장 아래 누운지 꼭 이틀, 입에서는 동백꽃술냄새 대신 단내가 나기 시작했고 나는 문득 치약 냄새가 맡고 싶었다.

팔뚝으로 치약거품이 흘러내리도록 오래오래 양치를 하면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냄새가 들어차고 또 섞여야 양치를 멈출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때로는 가슴속부터 싸하게 차오르고 싶은 열망에, 때로는 입에서 나는 단내가 견딜 수 없어서, 때로는 긴 길을 떠나거나 오랜 잠을 자기 전에 그냥 희게 웃고 싶어서 나는 이 치약 거품들을 타액과 함께 쏟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치약의 맛을 알게 해준 이들, 입냄새가 난다고 일러준 이들, 그리고 치약이 떨어졌을 때 가만히 자신의 것을 눌러 짜주던 이들이 떠오른다.

수돗물로 목구멍 깊숙한 곳을 헹궈낸 사람들이 시린 입김을 뿜어올리는 겨울이다.

동대학술상

제36회 학술상 입상작 발표

◇ 인문과학부문

본상 입상작 없음

가작 '역사적 문맥에서 보는 안민가 소고'
-일연의 조목 설정이유와 예기 해석의 의미를 점검하며
이효형(사범대 국교3)

◇ 사회과학부문

본상 입상작 없음

가작 '한국에서 바람직한 정부형태의 모색'
안효종(사과대 정치3)

◇ 자연과학부문

본상 '식물병원균에 길항력을 갖는 Pseudomonas cepacia JY6-10의 특성'
최경달(생자대 응생4), 송현주(생자대 응생4),
조상원(생자대 응생4)

가작 입상작 없음

◇ 심사위원

인문과학부문 박경준(불교대 불교학부 교수)
정태섭(사범대 역사교육과 교수 · 본사주간)

사회과학부문 양영진(사과대 사회학과 교수)

자연과학부문 김득영(이과대 물리반도체과학부 교수)
박인국(생자대 응용생물학과 교수)

인문과학부문 심사평

학문적 기여높은 흥미로운 주제 다뤄

먼저, 이번 동대신문사 제정 제 36회 학술상 인문과학부문 응모 논문 중에서 본상 수상작이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사범대 국어교육과 이호형 군의 '역사적 문맥에서 보는 안민가 소고'가 가작으로 선정되었다. '일연의 조목 설정 이유와 예기(禮記) 해석의 의미를 점검하며' 라는 부제가 붙은 이 논문은 우선 그 주제가 흥미있고 학문적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안민가가 만들어진 경덕왕대의 시대상을 고찰함은 물론, '삼국유사'에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를 설정하여 집필한 기록자 일연이 살았던 시대상까지 분석함으로써 안민가의 성격을 한층 구체적으로 규명하려 한 점은 단연 돋보인다. 논리적 긴장이 조금씩 흐트러진다든가, 자료의 활용과 해석이 가끔씩 매끄럽지 못하다든가, 문장이 더러 명료하지 못하다든가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간다면 앞으로 더욱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문학부 국민윤리학 전공 장수성 군의 '윤리학의 정초를 향하여 아펠의 선험화용론적 접근'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쉽게 수상은 못하였지만 계속 정진한다면 훌륭한 논객으로 성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박 경 준
불교대 불교학부 교수

사회과학부문 심사평

논문작성 기초없는 빈약한 글 태반

심사평에 대신하여,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논문 쓰는 방법의 기초를 새삼 강조하고 싶다. 논문이란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 필자가 1. 자기의 주장을 2. 논리적으로 3. 서술하는 것일 게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형식과 내용에 관한 몇가지 기본적인 규칙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형식면에서는 목차를 통해 글 전체의 윤곽을 제시하고, 인용한 남의 글은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자기 주장과 남의 견해를 최대한 간결하게 구분해 주는 것 등을 들수 있다. 내용면에서는 주어와 술어가 일치되는 짧은 문장의 반복을 통해, 논지를 흐리는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과감히 버리고 자기 주장의 요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할 것이다.

응모한 여섯 편 모두를 정독했으나 불행하게도 평자가 생각하는 논문작성법의 기초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한 빈약한 글들이었다. 그것들은 자기 주장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았으며, 서술은 애매모호했다. 학점따기 위해 제출했던 해묵은 보고서, 남의 글을 적당히 짜깁기한 것, 투자 기획안 같은 것도 있었다.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제일 나은 것으로 안효종(정치3)의 '한국에서 바람직한 정부형태의 모색'을 들 수 있다. 비교적 시의적절한 주제를 택해 학부생 수준에서는 많은 참고문헌을 사용하여 문맥이 통하는 글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제목부터 어감이 애매모호하고, 군더더기가 많아 절반정도 잘라내야 논지가 더 분명해질 글이다. 더 나은 글로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며 가작으로 밀어본다.

양 영 진
사과대 사회학과 교수

자연과학부문 심사평

유용한 항생질로서 활용가치기대

'식물 병원균에 길항력을 갖는 Pseudomonas cepacia JY6-10의 특성'에 관한 연구논문은 각종 식물병원진균에 대하여 길항작용을 보유한 미생물을 분리한 다음, 길항미생물의 식물병원에 대한 항균력의 조사와 미생물의 동정 및 항균물질의 최적조건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최근 유기합성농약의 대량남용과 그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오염은 식량생산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서 토양내 서식하고 있는 병원균에 대한 미생물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사료된다.

현재 토양미생물들 중에는 식물병원진균에 대하여 항균활성물질을 분비하여 천연물 항진균제로서의 개발이 가능한 유용한 미생물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선발된 항진균 활성이 매우 높은 JY6-10균주는 Gram-negative이고 항생제 내성을 보유한 운동성이다. 전자현미경에 의한 형태적 고찰을 보면 0.4~0.6×1.0~1.3㎛ 크기의 간균이다. 생화학 반응의 특성으로서 arginine, lactase등의 활용도에 있어 Pseudomonas cepacia로 동정되었다. 특히 이 미생물은 Botrytis cineria 외 14종 식물병원균과 Phytophthora infestanesr균에 대한 강력한 항진균 능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항진균 물질 생산에는 peptone과 saccharose가 바람직한 carbon source와 nitrogen source로 조사되었다.

소량의 항진균 물질로도 우수한 방제효과와 균사생장억제 효과가 있어 식물방제에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다른 식물병원 진균에도 도입하여 항진균 활성 및 살균효과 그리고 안전성 등을 동물실험을 통해 철저한 검색을 하고 상기한 문제점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앞으로 유용한 항생물질로서의 활용가치가 있으리라 평가한다.

박 인 국
생자대 응용생물학과 교수

제36회 동대학술상 수상작

자연과학부문
본상 수상작

식물병원균에 길항력을 갖는 Pseudomonas cepacia JY6-10의 특성

Ⅰ. 서 론

오늘날의 식량 생산 증대는 유기합성농약의 개발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이들 유기합성농약을 대량 사용함에 따라 자연 생태계가 변화하고 항생제내성 미생물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식물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1,12,31,).

특히, 식물병에 의한 피해는 단순히 수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병원균이 생산하는 2차 대사산물에 의해 인축(人畜)이 강한 독성 피해를 받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1). 따라서 천연 저독성 농약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실용화된 천연물 항진균제는 그 종류가 매우 적다.

이러한 새로운 항생제를 얻으려는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나뉘는데, 기존 항생제의 구조를 변화시켜 항균력을 높이거나 내성균주에 대하여 유효한 것을 얻으려는 시도와 자연생태계의 미생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생물질을 탐색하는 방법이 있다(3,14,21,24,). 그러나 기존 항생물질의 구조를 변경하는 연구는 기술적 애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자연 생태계에 서식하는 신종의 미생물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미생물 자원의 대사산물 중 항균활성을 지닌 물질을 탐색하려는 연구가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6,7,8,9,10,11,20,23).

인체 및 농작물에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으로서 진균류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농업 분야에 있어서 병원성 진균을 방제하기 위한 방법은 항진균제를 농작물의 엽면에 살포하거나 길항미생물을 사용하는 생물학적 방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24). 특히 병원성 진균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는 길항미생물을 토양에 뿌려주거나, 식물의 종자 또는 뿌리표면에 처리하여 줌으로써 병원균의 생장을 억제하고 식물의 생육을 좋게 하는 방법으로서, 농약에 비해 개발에 필요한 시설투자 비용이 적게 들고, 환경오염의 위험이 적으며 토양 내에 길항미생물의 종류가 풍부하여 연구대상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실용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5,15,21,24,).

식물병 방제를 위한 길항 미생물로는 Trichoderma spp., Pseudomonas spp., Streptomyces spp., Agrobacterium spp., Bacillus spp. Myxococcus spp. 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21,22,23,33,). 식물병원균에 대한 길항미생물의 길항작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병원균에 유해한 항생물질을 생산하여 병원균의 생장을 억제하거나 병원균의 포자 또는 균핵과 같은 휴면기관의 발아를 억제하는 것, 둘째, 근면에서 식물이 분비하는 대사물질 중 토양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양분에 대해 병원균과 경쟁하거나 토양에 존재하는 철 이온과 같은 무기물을 병원균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셋째, 병원균에 기생하여 병원균을 분해하는 것을 들 수가 있다(3,13,15,26,34).

항생물질을 분비함으로써 길항작용을 하는 미생물은 대부분 방선균 또는 세균이며, 이 중에서 Pseudomonas와 Bacillus에 속하는 세균들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9,13,16,17,25). 최근 Pseudomonas cepacia 균주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척되어 있는데, P. cepacia는 Phenylpyrrole계 항진균물질인 pyrrolnitrin, aminopyrrolnitrin, 2-chloro-aminipyrrolnitrin 등과 Pseudones를 생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6,17).

본 연구에서는 각종 식물병원진균에 대한 길항작용이 강한 미생물을 분리하여, 이 길항미생물의 식물병원균에 대한 항진균능력 조사와 동정, 항균물질의 최적 생산 조건을 찾기 위한 생리실험을 수행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채집토양의 특성 조사 및 길항세균의 분리

가. 토양의 특성조사

김포군 대벽 2리에 소재한 소나무의 주변 토양을 지면으로부터 10cm내외에서 채취, polyethylene bag에 넣어 4℃에 보관하였다. 토양의 특성요인으로서 pH, M.C(Moisture contents), O.M(Organic Matter)을 측정하였으며 토양의 pH는 [토양:증류수(pH7.0)]의 비율(W:V)을 [1:5]로 하여 160rpm에서 1시간 동안 shaking한 후 측정하였다. M.C는 105℃의 dry-oven에서 12시간 동안 처리 후 weight를 측정. O.M은 4500C의 전기로에서 4시간 동안 연소시킨 후 측정하였다.

나. 길항세균의 분리

채집한 토양에서 길항성을 띄는 미생물을 분리하기 위해 King's B Agar 배지와 N.A 배지에 희석평판법에 따라 형성되는 세균 colony 수를 40-80 cfu(colony forming unit)/petri dish로 조정한 다음 Botrytis cinerea의 포자현탁액을 각각의 배지에 분무접종하였다. 분무후 48시간 뒤,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colony를 분리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20, 21).

2. 길항세균의 동정

가. Gram's stain

분리된 세균을 Crystal violet으로 염색 후, Gram's Iodine으로 1분간 염색, 95% EtOH로 탈색후 Safranin으로 후염색하여 세균의 형태 및 Gram적 특성을 조사하였다(18).

나. motility test

Semisolid media(Nutrient broth containing 0.4% Agar), 28℃ incubator에서 배양하면서 균이 자라는 동안 접종된 선이 변하는 형태를 관찰하면서 motility를 조사하였다(29).

다. 항생제 내성조사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 Streptomycin sulfate 18.8%, Oxytetracyclin 1.5%가 함유된 아그리마이신(성보화학)을 50ppm농도로 KB배지에 첨가하여 colony 형성 유무를 확인하였다.

라. 전자현미경에 의한 형태적 관찰

분리된 길항세균의 형태관찰을 위해 28℃, King's B agar 배지에서 3일간 배양후,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S-2460N, HITACHI, Japan)으로 관찰하였다(8,23).

1) 1차 고정 : 2-4hr at 4℃ with Karnovsky's fixative(2% parafor-maldehyde and 2% glutaraldehyde in 0.05M sodium cacodylate buffer(pH 7.4))에 침지하여 4℃에서 2-4시간 동안 고정하였다.
2) 세척 : 15min at 4℃, 3 repeats with 0.05M sodium cacodylate buffer(pH 7.4)로 4℃에서 15분 동안 3반복하여 세척하였다.
3) 2차 고정 : 2-4hr at 4℃ with 1% osmium tetroxide in 0.05M sodium cacodilate buffer(pH 7.4)로 4℃에서 2-4시간 동안 고정하였다.
4) 세척 : D.W로 상온에서 2번 세척하였다.
5) 탈수 : EtOH의 농도를 점증(30, 50, 70, 80, 90%)하면서 상온에서 15분씩 탈수시킨 후 100% EtOH로 상온에서 15분간 3번 최종탈수 시켰다.
6) 건조 : 15min at room temperature, 3 repeats with 100% HMDS (Hexamethyldisilazane) 상온에서 15분간 3번 처리 후, 건조시켰다.
7) 처리된 시료를 금막을 입힌 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마. 생화학적 반응 조사

길항세균의 Aerobic, Microaerophilic 조건에서 각각 생화학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GNI(Gram Negative Identification) Kit를 이용하여 각각의 영양원별 생화학적 반응을 확인, Bergey's manual(28)과 비교하여 세균을 동정하였다(23,24).

3. 길항세균의 길항력 조사

가. 각 식물병원진균과의 대치배양

분리한 균주 JY6-10의 항진균활성을 조사하기 위해 각종 식물병원균들과 대치배양을 하였다. 대상 식물병원균으로는 Alternaria alternata, Botytis cineria, Botryosphearia dorthiorella, Dorthiorella mali, Colletotrichum graminicola, Elsinoe ampelina, Fusarium oxysporum f. sp. cucumerinum, Fusarium oxysporum f. sp. lycoporsi, Glomerella cingullata, P. drechsleri, P. capsici, P. infestans, Phytophthora cactorum, Rhizoctonia solani, Sclerotium rolfsii이었다. PDNA plate에 각각의 식물병원균과 Pseudomonas cepacia JY6-10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접종한 후, 25~280C incubator에서 3~5일간 배양한 후, 저지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고, 억제된 균사의 형태를 현미경(Nikon, OPTIPHOT-2, Japan)으로 관찰하였다.

4. 길항세균의 배양적 특성

가. 길항세균의 Growth courve 조사

nutrient broth에서 28℃, 3일간 배양한 배양액을 접종원으로 하여 배지당 1ml씩 접종하여 28℃ Shaking incubator에서 배양하면서 2시간 간격으로 배양액을 채취 Baush & Lomb Spectronic 20 spectrophotometer로 O.D(Optical Density, T=100%)를 측정하여 Growth Courve를 조사하였다(24).

나. 길항세균의 영양생리 조사

여러 종류의 질소원 및 탄소원 배지를 조성하여 28℃, 150rpm, 72시간 배양하여 배양여액을 포자현탁배지(Botrytis cinerea)에 Screening하여 각 영양원 중에서 최대의 inhibition zone을 형성하는 것 즉, 항균물질 생산이 가장 좋은 영양원을 선발하였다(24).

A. 질소원배지 : 기본배지(pH 7.0)를 조성한 후 각 질소원을 15g/ℓ 농도로 첨가한다.
기본배지 : Glucose 30g/ℓ, MgSO4 ·7H2O 0.5g/ℓ, CaSO4 1g/ℓ, CaCO3 6g/ℓ
각 질소원 : Beef extract, Peptone, Polypeptone, Proteose peptone, Bacto-peptone Soytone, Tryptone, Yeast extract

B. 탄소원배지 : 기본배지(pH 7.0)를 조성한 후 각 탄소원을 30g/ℓ 농도로 첨가한다.
기본배지 : Bacto-peptone 15g/ℓ, MgSO4·7H2O 0.5g/ℓ, CaSO4 1g/ℓ, CaCO3 6g/ℓ
각 탄소원 : D(+) Galactose, D(-) Fructose, D(+) Glucose (Monohydrate), Starch Dextrose, Anhydrate, Maltose, Monohydrate, Saccharose, Lactose

C. 포자현탁배지 : B. cinerea를 PDA plate, 25℃에서 15일간 배양 후, 균사가 다자란 배지에 멸균수 15㎖을 붙고 멸균된 시약스푼으로 부드럽게 긁어 포자를 채집한다. 이 용액을 5000g에서 원심분리, 포자만 수확, 멸균수로 2회 Washing, 포자현탁액을 만들어 Hemocytometer로 포자수를 1.06×108spores/ml로 조정, 포자현탁배지를 조성하였다(30).

5. 항진균물질의 추출 및 최저억제농도 조사

가. 길항물질의 추출

길항세균을 nutrient broth에 shaking incubation 한 다음 PDNA 평판배지에 도말하여 28℃ incubator에 3일간 배양한 다음 세균이 자란 배지를 긁어서 100% MeOH에 2일간 상온에서 침지 시킨다.

이 용액을 11000g에서 원심분리시켜 상등액만을 취하여 규조토로 filtering 시켜 그 여과액을 농축기에서 감압농축시켜 MeOH를 다 날려버리고, 농축액이 진하게 되고 flask 벽에 붙으면 50% MeOH에 녹여서 물만 남기고 alcohol 성분은 모두 제거한다. 그 다음 freeze drying시켜 powder를 만들어 낸 다음 냉동실에 보관하여 실험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어 사용하였다.

나. MIC(Minimal Inhibitory Concentra- tion) test

위에서 얻어진 powder의 항균력을 조사하기 위해 최소균사생장억제농도를 측정하였다.

Botrytis cinerea를 PDA 평판배지, 25℃ incubator에서 5일간 배양하여 Cork borer로 일정크기(ϕ1cm)의 Slice를 만들어 항균물질이 농도별로 희석된 배지 - 추출된 항균물질을 50% MeOH 에 농도별로 희석한 다음 일정량(19ml)의 PDA에 희석시켜 배지를 조성- 에 올려놓아 균사생장이 억제되는 최소농도를 측정하였다.

Ⅲ. 실험결과

1. 토양의 특성 조사 및 길항세균의 분리

채집한 토양은 pH4.5의 산성토양이었고 M.C(Moisture contents)는 35.55%, O.M(Organic Matter)은 9.99%로 나타났다. 토양으로부터 다양한 세균이 분리되었다. 그 중에서 길항력이 있는 3종의 세균 AS, JY7-6, JY6-10을 선발하여 각 식물병원성 진균과의 대치배양을 한 결과 JY6-10균주가 가장 항진균활성이 뛰어났다. (Fig 1.)

2. 길항세균의 동정

선발된 JY6-10균주는 colony의 색은 yellowish였고, 형태는 circular였다. 또한 Gram negative, 간상세균으로 0.4~0.6×1.0~1.3㎛크기로 운동성이 있고(Table 1, Fig 5), Oxidase 양성, catalase 양성으로 Pseudomonas속의 특징을 보였다.

이 균주는 호기적 환경에서 Glucose, Acetamide, Citrate, Malonate, Lactose, Manose, Mannitol, Xylose을 이용할 수 있었고, Esculin, Urea, TDA(Tryptophane DeAminase), Polymyxin B는 이용하지 못하였다. 미호기적 환경에서 Adonitol, Arabinose, Lysine은 이용할 수 있었고 Raffinose, Sorbitol, Sucrose, Inositol, p-Coumaric acid, ONPG(β-Galactosidase), Rhamnase, Glucose, Arginine, Ornithine은 이용하지 못하였으며 H2S는 생산하지 않았다.이상과 같은 형태학적 생리적특징은 Ballard등(4) 의 문헌 및 Bergey's manual of systematic bacteriology(28)에 기재된 P.cepacia의 특징과 거의 일치하였다. 그러나 균주 JY6-10은 다음 arginine, adonitol, 및 lactose 의 이용성에 있어서 상기의 문헌에 기재된 특징과 상이하였다(Table 1,2., Fig 5.).

3. 길항세균의 길항력 조사

P. cepacia JY6-10의 항진균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물병원균들과 대치배양을 한 결과 P.cepacia JY6-10은 Alternaria alternata, Botryosphearia dothidea, Elsinoe ampelina, F. oxysporum f. sp. cucumerinum, Glomerella cingullata, Phytophthora drechsleri, P. capsici, Rhizoctonia solani, Sclerotium rolfsii에 항진균능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Dorthiorella mali, Colletotrichum graminicola, Botrytis cinerea, F. oxysporum, f. sp. lycoporsi, Phytophthora. infestans 등에 강한 길항능력을 나타냈으며 P. cactorum에는 길항력이 없었다.(Fig 2, 3.) 특히 억제된 B.cinerea의 균사를 관찰한 결과 정상적인 균사 (Fig 4. a.)와는 달리 swelling하거나 lysis되어 균사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b.).

4. 길항세균의 배양적 특성

가. growth curve

P. cepacia JY6-10균주는 배양 30시간까지 대수적인 성장을 계속하였으며 이후에는 최대정지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6.).

나. 길항세균의 영양생리조사

P. cepacia JY6-10 균주의 항진균물질 생산에 미치는 탄소원과 질소원의 영향을 조사하였다.단일 질소원으로는 peptone을 첨가할 때 항진균활성 능력이 가장 높았고, tryptone, yeast extract, beef extract, soytone을 첨가할 때에도 항진균 활성능력이 좋았다. 그러나 질소원을 첨가하지 않은 기본 배지는 효과적이지 못 하였다. 단일 탄소원으로서는 saccharose가 가장 좋았고 maltose, starch, lactose, galactose가 좋았다. glucose, dextrose, fructose는 탄소원을 첨가하지 않은 기본배지와 거의 비슷한 항진균활성을 나타내었다(Table 4,5.).

5. 항진균활성물질의 추출 및 MIC test

P.cepacia JY6-10균주의 배양액 중에 함유된 항진균물질을 MeOH로 추출하여 evaporator로 농축한 후 freeze dryer로 황색의 powder를 얻었다. 추출된 powder를 1/100, 1/200, 1/400, 1/600, 1/800, 1/1000, 1/1500, 1/2000, 1/2500, 1/3000로 희석시켜 PDA배지에 첨가했을 때 1/3000까지 균사 생장 억제 능력을 나타내었다(Fig 7.).

Table 1. Characteristics of Pseudomonas cepacia JY6-10.

Cell type	Rod-shape
Cell Size(㎛)	0.4~0.6×1.0~1.3
Form of colony	circular
Color of colony	yellowish
Gram's stain	negative
Motility	positive
Antibiotics susceptibity	resistance
Oxidase reaction	positive

Table 2. Characteristics of Pseudomonas cepacia JY 6-10 identified by GNI Kit.

Culture condition			
Aerobic	reaction	Microaerophilic	reaction
Glucose (Oxidative)	+	Raffinose	−
Acetamide	+	Sorbitol	−
Esculin	−	Sucrose	−
Urea	−	Inositol	−
Citrate	+	Adanitol	+
Malanate	+	p − Coumaric	−
TDA (Tryptophane DeAminase)	−	H2S production	−
Polymyxin B	−	ONPG (β-Galactosidase)	−
Lactose / 10% Lactose	+	Rhamnase	−
Manose	+	Arabinose	+
Mannitol	+	Glucose (Fermentative)	−
Xylose	+	Arginine	−
		Lysine	+
		Ornithine	−

Elapsed time ; 18hrs, + ; positive reaction , − ; negative reaction

제36회 동대학술상 수상작

Table 3. Antifungal activities of Pseudomonas cepacia JY 6-10 against various plant pathogens.

Plant pathogens	Plant disease	Size of clear zone(㎜)
Alternaria alternata	딸기검은무늬병	13.0±1.2
Botrytis cineria	잿빛곰팡이병	17.6±1.5
Botryosphearia dothidea	사과겹무늬썩음병	16.0±1.5
Colletotrichum graminicola	호밀탄저병	19.3±2.3
Dorthiorella mali	밑썩음병	22.3±1.2
Elsinoe ampelina	포도나무새눈무늬병	11.2±6.5
Fusarium. oxysporum f. sp. cucumerinum	오이덩굴쪼김병	9.3±1.2 F.
oxysporum f. sp. lycoporsi	토마토시들음병	16.3±1.5
Glomerella cingullata	포도탄저병	12.6±2.3
Phytophthora drechsleri	수박덩굴마름병	14.9±3.5
P. capsici	고추역병	7.5±2.6
P. infestans	감자역병	11.4±1.5
P. cactorum	사과역병	0.0
Rhizoctonia solani	모잘록병	10.4±0.9
Sclerotium rolfsii	수박흰비단병	15.3±2.3

The antifungal activities of P. cepacia JY6-10 were checked after incubation on PDA media at 25℃ for 5 days.

Table 4. Effect of Nitrogen source on antifungal activities against Botrytis cinerea

Nitrogen source	Diameters of inhibition zone(mm)
Basal medium	0.0 d
Peptone	21.3 a
Proteose - peptone	14.3 c
Trypton	18.7 b
Soyton	16.3 bc
Beef extract	15.3 c
Yeast extract	16.0 bc
Nutrient broth	16.7 bc

The antifungal activity of P. cepacia JY6-10 was checked after 5 days incubation in media containing 15g/ℓ of each nitrogen at 26.5℃.

Table 5. Effect of Carbon source on antifungal activities against Botrytis cinerea.

Carbon source	Diameters of inhibition zone(mm)
Basal medium	10.3c
Glucose	9.7c
Dextrose	9.7c
Maltose	24.7b
Galactose	15.3bc
Saccharose	27.7a
Starch	20.0bc
Lactose	18.3bc
Fructose	10.7c

The antifungal activity of P. cepacia JY6-10 was checked after 5 days incubation in media containing 15g/ℓ of each carbon at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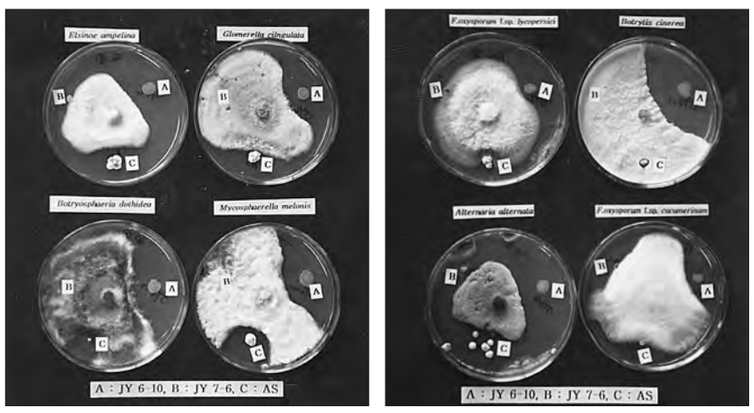


Figure 1. Antagonistic inhibition to mycellium growing by As, JY6-10, JY7-6 with various plant pathogens incubated at 25℃, for 5 days, on PDA plates.

Figure 2. Antagonistic inhibition to mycellium growing by JY6-10 against various plant pathogens incubated at 25℃, for 5 days, on PDA pl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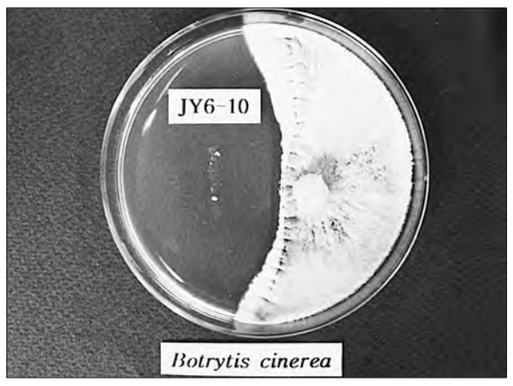


Figure 3. Antagonistic inhibition to mycellium growing by JY6-10 against Botrytis cinerea incubated at 25℃, for 5 days, on PDA plate.

Figure 4. Antagonistic activity of the isolates against B. cinerea hyphae on PDA plates. (Nikon,OPTIPHOT-2, Japan)
a. Normal hyphal branching of B.cinerea. (×100)
b. Abnormal hyphal branching caused by cell wall lysis.(×400)
c. Abnormal hyphal branhing caused by swelling.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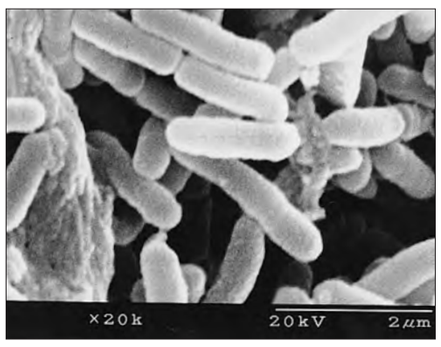


Figure 5.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P. cepacia JY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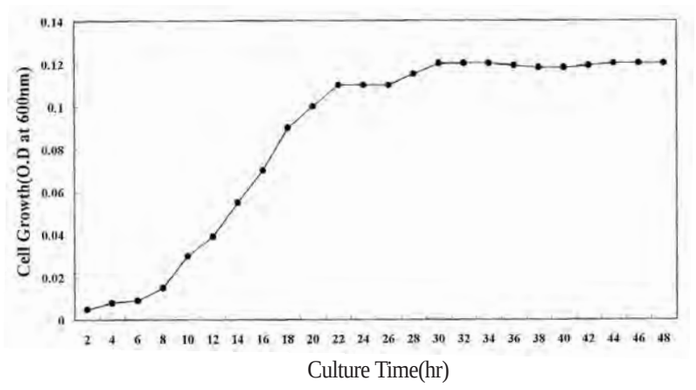


Figure 6. Culture profile of P.cepacia JY6-10. P.cepacia JY6-10 was cultured in nutrient broth at 28℃, 250rpm.

Figure 7. The Result of MIC Test

Ⅳ. 고 찰

토양미생물들 중에 식물병원진균에 대해 항균활성물질을 분비하여 천연물 항진균제로서의 개발에 유용하리라 여겨지는 미생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1,19,32). 이에 속하는 미생물로는 Pseudomonas, Bacillus, Streptomyces 속등이 있으며(2,8,17,24),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분리하여 본연구에 사용된 길항세균은 Pseudomonas cepacia로 동정되었으며(Fig. 5), 식물병원균에 종특이적인 길항력을 갖고 있었고, 다양한 병원균에 대해 종합적으로 길항력을 갖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Figure.2).

또한 항균력의 증가를 위해서는 배지에 질소원과 탄소원을 첨가하여 주는 것이 좋았으며, 특히 질소원은 peptone이 항균활성 능력이 가장 좋았고 탄소원은 대체로 종류에 상관없이 비슷한 항균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P.cepacia JY6-10균주는 특정한 질소원을, 어떤 종류이든 탄소원으로 영양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4,5). 그리고 mycellium의 현미경 사진을 보면 길항균이 mycellium에 접촉된 후 swelling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P.cepacia JY6-10이 분비한 항균물질이 균사를 swelling시킴으로써 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였다.

본 실험에서 screening 대상 균으로서 B. cinerea를 이용하였는데(Fig.4), 이 병원균은 양딸기, 오이, 강낭콩, 상추, 사과나무, 포도나무, 백합, 국화 등 많은 식물의 열매, 잎 또는 줄기에 발생한다. 그리고 포장에서 뿐 만아니라 열매의 저장 중에도 발생하여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병이다(27, 30).

또한 근래에 와서는 온도가 낮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습도가 높은 하우스 재배에서 대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하우스는 환경조절이 잘 되지 않으므로 경종적 방제는 사용이 어렵고 주로 약제 방제에 의존한다. 하지만 내성균이 출현하여 프랑스의 포도산지나 일본 등의 야채시설 등의 원예산지에서는 약제방제효과 저하가 확인되고 있다(27,31). 그러므로 보다 좋은 약효를 지니는 약제를 개발하는 것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재 미국, 일본, 유럽의 유명 농약회사들이 B. cinerea에 의한 잿빛곰팡이병을 살균제 1차 screening 대상병에 포함시키고 있다(27). screening을 통해 항균물질과 식물병원진균 사이에 어느정도 거리가 존재해도 강한 균사생장 억제현상을 보였으며, MIC test에서는 1/3000정도로 희석하여도 효과를 볼 수 있었다(Figure.7). 이는 소량의 항진균물질로도 우수한 방제효과를 보였으며, 균사생장억제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식물병 방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Pseudomonas cepacia JY6-10은 잿빛곰팡이병방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균추출물을 이용하여 다른 식물병원 진균에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안정성,항진균활성, 살균효과에 대한 철저한 동물실험을 통해 인류의 진균병 치료를 위해 유용한 항생물질로서의 활용가치도 높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토양속에 풍부한 유용 미생물을 통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더불어 환경과 인류에 무해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Ⅴ. 적 요

경기도 김포지역의 pH 4.5. M.C가 35.55%, O.M이 9.99%인 토양에서 길항능력이 있는 JY6-10, JY7-6, As등의 균을 분리하였다. 그 중에서 항진균활성이 가장 높은 JY6-10균주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선발된 JY6-10균주의 동정결과는 Gram-negative이며,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운동성이 있었다. 전자현미경에 의한 형태적 관찰을 통해 크기가 0.4~0.6×1.0~1.3㎛인 간균이라는 것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생화학적인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GNI kit에서 18시간 동안 반응시킨 결과, 99% Pseudomnas cepacia로 동정되었으며 arginine, adonitol, 및 lactose의 이용성에 있어서 Bergey's manual of systematic bacteriology에 기재된 특징과 상이하였다.

P. cepacia는 Botrytis cineria외 14종의 식물병원균에 길항력을 나타내었고, 특히 Phytophthora infestans 등의 균에 강한 항진균능력을 나타내었다. Pseudomonas. cepacia JY6-10은 시간에 따른 배양적 특성은 6시간 후부터 30시간까지 logarithymic phase를 나타내었고, 32시간 후부터 stationary phase를 나타내었다.

항진균물질 생산에 미치는 탄소원과 질소원의 영향은 각각 peptone, saccharose가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Pseudomonas. cepacia JY6-10균주의 배양액을 Me-oH로 추출, 농축하여 동결건조시킨 결과 황색 powder를 얻었고, 얻어진 powder의 항진균능력을 test하기 위해 MIC test를 실시하여 최소억제농도를 1/3000로 결정하였다. Pseudomonas cepacia JY6-10은 다양한 식물병원성 진균에 길항작용을 나타냈으며 오랫동안 그 효과가 지속되어 식물병의 생물학적 방제에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자연과학부문 본상 수상 소감

최경달 · 송현주 · 조상윤(생자대 응생4)

생각치도 못했는데 이렇게 본상까지 받게 되니 지난 1년간의 쉽지만은 않았던 시간들과 많은 고마운 분들이 생각난다. 실험대상의 특성상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들 때문에 수없이 계획을 변경해야 했고, 그만큼 실험기간도 늘어났다. 그리고 한 논문에 세 명이나 참여하기 때문에 남들은 여유있었겠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오히려 서로 바빠서 실험할 때 어려운 점이 많았다. 예상하시겠지만 가끔 일어나는 의견 충돌로 서로 예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힘든 기억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이다. 대학 4년간 실험 수업에서도 해보지 못했던 장기간의 실험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실험과정 하나하나를 정성들여 하고, 그러고도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여러 번 반복 실험을 했다. 물론 처음에는 뜻하지 않게 너무나 결과가 안 나와서 무척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너무 지쳐서 짜증도 났다.

이 실험을 하면서 생물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생물에 대해 보다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끈기와 여유라는 것도 다시 배웠다.

이 실험을 시작해서 마치기 까지는 여러 고마운 분들의 도움이 컸다. 특히 4년이란 짧지 않은 대학 생활 동안 늘 인자함과 너그러움으로 가르쳐주신 이민웅 교수님, 늘 솔선수범하시며 관심있게 지켜보시며 격려해 주신 이해풍 교수님, 김혜영 교수님, 박인국 교수님, 김주필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바쁘신 와중에도 후배들을 위해주신 기돈이형, 종철이형, 천사같은 영규형, 임업연구원의 가강현 선생님, 동물실의 김재영 선생님, 기원이형, 동규형, 늘 선배들 옆에서 힘이 되어준 미생물실 후배들, 은경, 은희, 소정, 향임, 홍일, 정희, 은정, 윤희, 종현이 그리고 금강초롱회 후배들, 사계의 학균이, 진원이, 동환이, 진환이 이외에도 응생과 학우들 이 모든 이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보다 더 열심히 했더라면 더욱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지만 대학 4년간의 경험 중 잊지 못할 소중한 체험이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자식들을 위해 대학 4년 동안 걱정과 염려로 보살펴 주신 부모님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탈수습기

열정으로 지켜야 할 대학언론의 순수성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으로 찾아가리라

이미숙(사과대 사회과학계열) 기자

회기역에는 전철과 철도 선로가 함께 있다. 따라서 청량리역까지의 한 구간은 신호대기로 인해 긴 시간이 소모되기도 한다.

5월 23일. 기자가 되기 위해 학생회관 지하 신문사 문을 연 순간부터 내 인생도 교차역을 향한 짧지 않은 전환기를 맞이 하였다.

신문사에 적응해 갈수록 스무 해 동안 '나'를 규정지었던 사고와 행동에 혼란이 일기 시작했다. 타인의 눈길을 의식하며 소극적으로 살아온 내가 이제는 술자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낯선 사람에게 넉살좋게 말을 걸어보기까지 한다.

크게 버리는 자가 크게 깨닫는다고 했던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변화일지라도 그것 또한 '나'를 구성하는 일부이기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건 7개월간의 수습기자 생활 속에서 버팀목을 찾았기 때문이다.

'열정.' 사회부를 맡으면서 여러 집회에 참가했다. 몰랐기 때문에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빈민, 노동자, 학생들의 집회들. 기성언론이 자본의 날개를 달고 종횡무진 불의와 정의를 오갔다면 대학언론의 순수성은 학생기자의 열정으로 지켜내야 하지 않겠는가. 손에 들린 취재수첩에 힘이 실린다.

'의무와 책임.' 처음에 기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내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가 기자가 된 이유를 묻더라도 '선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그 안에 포함된 것은 무책임과 몰인정이라고 느껴지기에.

'오기.' 이 또한 기자 생활 속에서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다. 처음 취재간 날, 어눌한 말투와 어색한 표정을 눈치챈 취재원이 수습기자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당당히 대응하지 못하고 돌아섰을 때 기자로서 한없이 부끄러웠다. '강해지리라, 독해지리라, 그리고 더 나아지리라….' 가슴속에 오기를 키워갔다.

지금까지의 수습시절이 덜컹거리며 지나가야 하는 교차역이었다면 지금은 지나가는 열차를 위해 잠시 멈춰야하는 신호대기 구역에 서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떠올려 본다. 그리고 다짐해본다.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을 찾아가겠노라고.

이미숙기자

아름다운 동국 청년에게 달하나 천강에

유 지 나
예술대
연극영상학부 교수

얼마전 '태양은 없다'라는 영화를 보았다. 한국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후줄근하게 웃기거나 야비한 강간범 같은 남성 캐릭터가 아닌 멋진 남성스타-정우성과 이정재의 이탈적 매력을 마음껏 살린 영화여서 볼만 했다. 그 중에 나오는 이정재의 명대사중 이런 게 있다. "요즘 개나 소나 다 대학가는데…. 그게 뭐냐? 난 대학 안가. 그게 개성 있잖아?" 맞는 말이다. 대학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거리에 나가보면 20대 고만고만한 젊은이들은 다 대학생인 것만 같다. 게다가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지성, 교양, 기품 있는 매너를 갖춘 젊은이라는 신분보장이라는 말도 그리 실감나지 않는다. 그러나 개나 소나 말처럼 누구나 다 가는 대학에 졸업장 따러와서 대충 보내고 나가는 짓이야말로 가장 한심한 일이다.

대학시절이야말로 인생에서 특혜를 누리는 축복받은 시절이다. 자신의 앞날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사회에 나가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비극은 바로 그런 대단한 가치를 자신이 누리는 동안은 실감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한국처럼 책값이 싼 나라에서 대학생이 돈이 아까워 교재조차 안사면서 비싼 커피값과 이동통신료는 마음대로 쓰는 것이나,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교생활보다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통해 얻은 자유시간을 여가시간으로 보내는 것은 우둔한 짓이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온 이들이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대학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대학시절을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단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위해 다음 세가지를 대학에서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대학시절은 대단한 성공이다. 우선 일생을 두고 존경할 수 있는 선생님을 한 분 만나는 것, 속마음을 털어놓고 인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같이 놀러 다니는 친구가 아니다)를 다섯명이라도 사귀는 것,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이나 영화 같은(인류의 선배가 남긴 궤적이라는 점에서) 작품을 1백편정도 독파하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이 세가지는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만난 일생을 존경할 스승이 내게 해주셨던 이야기를 약간 각색한 것인데, 이 말은 경험상 정말 맞다.

세상이 부패하고 보수적이고 답답하더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부당한 차별에 분노하더라도 그것에 주눅들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늘 그런 악들과 맞서 싸우기위해 자신을 강하면서도 선하고 현명한 존재, 실력있는 지적인 존재로 단련시키는 것, 그리하여 개나 소나 한마디씩 하는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자신을 꿋꿋세워나가는 일, 바로 그런 중요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대학시절이다.

김영철 교수가 권하는 책

중국사의 시스템이론적 분석

중국은 서양보다 왜 낙후되었는가 라는 문제의 제기는 바로 80년대 중국이 죽의 장막을 걷고 세계무대에 재등장하면서 중국 자신의 낙후된 위상을 인식하게 되면서 비롯된다. 이 문제는 다시 중국의 봉건사회는 왜 2천년이나 지속되었는가 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 책에서 중국학자 김관도는 이 문제를 시스템 이론으로 풀이한다. 그는 시스템 이론을 원용하여 중국 봉건 사회의 장기지속은 왕조의 주기적 붕괴(대동란)와 재생을 통해 그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고 옛 구조를 회복하는 초안정 시스템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 책에서 제시된 시스템 이론은 우리에게 향후 중국과 한국의 역사나 사회전체를 통찰하는데 색다른 안목을 제공한다.

도서출판 신서원, 정가-6천원

중국의 붉은별

이책은 당시 31세였던 미국 캔저스 출신 기자 에드가 스노우가 비밀리에 목숨을 걸고 중국의 서북지역에 봉쇄된 홍군(중국 공산당 군대)의 기지를 탐방하여 1936년 당시 전세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홍군의 실상과 지도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현지에서 직접 보고 작성한 보고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보고문에 그치지 않고 모택동, 주은래, 주덕, 팽덕회, 하룡등 중국혁명 지도자들의 이력을 하나의 일관된 역사로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이라는 의미와 그들의 운동이 결국은 중국의 역사를 바꿀것이라는 것을 최초로 암시한 예언서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책은 중국 현대사나 현대사회를 이해하려는 학생들에겐 필독서이며, 이념과 개인역사와 개인의 관계를 음미하며 독서할 필요가 있다.

두레신서, 정가-5천삼백원

산에는 꽃이 피네

이 책은 지난 여러 해 동안 법정스님이 법문하시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려 뽑은 것이다.

이 책의 장점은 이 책의 내용처럼 여백과 절제와 단순함이 단아하게 드러나고 있다.

"때로는 개울에서 흘러내리는 비 온 뒤의 힘찬 물줄기처럼, 때로는 대나무 숲에 겸허하게 내리는 싸락눈처럼,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문득 고요한 깨달음의 자리로 인도한다. "이책의 글들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그리고 넘쳐나는 물건들에서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오늘의 현대인들에게 조용히 자기 내면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하고 맛깔스런 정신적 양식이다.

동쪽나라, 정가-7천원

영상매체비평

- 광고편
가족애를 다룬 광고들

"믿고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고자하는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가족뿐이다"

좀처럼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보인다. 대량실업과 임금 삭감 등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우리의 생활은 그야말로 어려움의 연속이다. 이런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층 역시 월급쟁이 서민들일 것이고 바로 이들은 광고에 있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목표 집단이며 소비자들인 것이다.

IMF 이후 생활의 변화 중에 두드러진 것이 무엇일까. 가장 큰 것은 소득의 감소에 따른 소비의 위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직장인들의 경우 술자리도 줄게 되고, 주부들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여념이 없는 것이다. 심리적으로는 어떨까. 오늘 바로 옆자리에 앉아 함께 일하던 동료를 내일이면 못보게 되고, 평생 직장이라고 믿었던 회사도 불황을 핑계로 언제 감원의 시퍼런 칼자루를 들이댈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시대의 어려움이 가족의 가치를 새롭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몇 년전만해도 가족을 돌보지 않고 오직 회사일, 자기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이 사회의 커다란 덕목이었다. 하지만 그런 편견은 오늘날 어떤 결과를 주었는가.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곳에는 철저하게 경제와 생존의 원칙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주의의 부각은 물론 경제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머니 사정으로 집 밖에서의 활동이 위축되었고, 그 시간만큼 가족들끼리 지내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요즘 광고를 보면 이런 가족간의 사랑을 소재로한 것들이 많이 눈에 띈다. 그 어느 때보다 그 가치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요즘이기 때문이다. 가족을 통해 위안을 받듯, 광고도 이런 사랑의 의미를 제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간의 사랑을 소재로한 광고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부부가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최수종과 하희라 커플을 모델로한 여성지 퀸, 손지창, 오연수 커플을 모델로 한 삼성전자의 수중강타 세탁기 광고, 유동근과 전인화를 모델로한 빨간펜광고, 서세원, 서정희 부부를 모델로한 웅진 씽크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부부관계의 설정은 광고라는 가정된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부를 통해 그 사실감을 더하는 유형들이 주조를 이룬다. 한미은행, 타코나 광고 등이 그러하다. 그 밖에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설정한 샘표 기업PR광고, 유한양행 기업PR, SK제약의 트라스트 광고와 온가족이 등장하는 유형으로 야쿠르트 에이스, 구구 광고 등이 있다.

최근 한 광고회사의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조사에서도 IMF 시대 가정은 거의 유일한 위안이며 쉼터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광고는 자연스럽게 이런 소비자들의 의식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훈훈한 가족애를 소재로 한 광고들이 요즘 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광고들의 특징은 제품의 효능이나 성능 보다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성적인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이고 이는 보다 친근한 이미지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서려는 기업들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진다.

양 웅
금강기획 카피라이터

"전환의 기점에서 도약하는 새아침을 맞이하자"

현실인지속에 보다 나은 새해 계획 모색해야

98년 호랑이해가 저물고 토끼해가 밝았다. 지난 98년은 IMF한파로 인해 우리 민족의 웅혼한 기상을 상징하는 호랑이가 맥없이 쓰러져버린 한 해였다. 온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경제위기는 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는 학생들의 99년 신년계획에서도 살필 수 있었다.

운전면허를 따서 고급자동차를 구입한다거나, 이성친구를 사귀고,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등의 소비적이고 다분히 오락적인 것만을 신년계획으로 삼던 학생들은 경제위기라는 한파를 맞더니 달라졌다.

"새해계획이요? 한숨부터 나오네요." 불교대의 한 학생은 신년계획을 묻는 기자에게 대뜸 이렇게 전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에 충실하고 그 외 취업의 필수조건인 영어회화나 컴퓨터를 방중에 배워두겠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그저 용돈을 벌기 위해 시간이 남으면 하던 것을 이제는 학비 마련을 위해 학교를 휴학하면서까지 아르바이트에 전념하는 것이다. 남학생들의 신년계획 중 하나 군입대.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이 되지 않은 4학년 학생들은 도서관을 다니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 새해계획이라고 씁쓸하게 밝히며 그 외의 것들은 사치라고 여겼다.

이처럼 학생들에게서 들은 새해계획은 IMF 이후 정신적, 경제적 타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98년 한해는 기울었다.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고양이 울음소리를 낸 것이 지난 한 해였다면99년 새해에는 학생들이 토끼처럼 빠르고, 영특하게 경제위기 난국을 헤쳐나가길 기대해본다.

〈인〉

'설' 풍속, 세계인의 풍속으로

설날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이다. 많은 나라들이 새해를 맞는 여러 가지 풍속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다. 즉 돌아가신 조상에게 세배를 드리는 것이다. 차례를 지낸 다음에는 살아 계시는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린다. 할아버님 할머님, 부모님께는 물론이고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세배를 드린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는 세배돈을 주기도 하고 장성한 젊은이에게는 "올해는 장가를 가야지" "건강하거라"등의 덕담도 한다. 세배가 끝나면 집안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새해 음식을 먹는데 설날음식으로 대표적인 것은 떡국을 먹는 것이다.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는 대신 떡국을 몇 그릇 먹었느냐고 묻기도 한다. 설날에 음식을 먹은 후에는 친척 어른이라든가 동네 어른들을 찾아 뵙고 새해 세배를 드린다. 설날의 대표적인 놀이로는 연날리기, 윷놀이, 널뛰기 등이 있다.

설날의 풍속 중 많은 것이 사라지고 잊혀졌으나 아직도 전해지는 풍속으로는 복조리 달기가 있다. 섣달 그믐날 복조리 파는 장사가 지나가면 복조리를 사서 붉은 실에 매어 벽에 걸어두는 것이다. 이 복조리는 복을 긁어모아 건진다는 뜻이 있어 새해에 복을 많이 받고자 하는 염원에서 하는 풍속이다. 요새는 복조리장수가 각 집의 마당에다 복조리를 던져 넣고 후에 그 집에 가서 돈을 받아가기도 한다.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설날의 풍속은 매우 소극적인 면이 많다. 설날의 의미가 '삼간다, 근신한다'의 뜻으로 조심하여 가만히 있는다는 것을 뜻하였으니 말이다. 1년의 새로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될수록 아무 탈없이 무사히 지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하겠다. 그러나 설날의 연장으로 정월보름날에는 각가지 흥겨운 놀이와 행사가 있다. 대표적인 놀이로 줄다리기와 지신밟기가 있다.

줄다리기는 남한 각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놀이로서 한 마을이 동서로 나뉘어서 줄을 당겨 승부를 겨룬다. 동쪽이 숫줄, 서쪽이 암줄이라고 하는데 암줄이 이겨야 풍년이 된다고 하여 대개는 여자편이 이기도록 한다. 여자쪽이 이기도록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여자쪽으로 참가하고, 또 나이든 할머니들은 남자쪽으로 가서 줄을 당기는 남자들을 회초리로 때려 그들이 힘을 못쓰도록 한다. 줄당기기가 끝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줄을 어깨에 메고 마을을 한바퀴 돌고 그 줄을 마을의 수호신 몸에 감아 놓고 마을의 안녕을 빈다. 이 줄당기기는 온 마을주민이 참가하는 축제이다.

지신밟기는 정초부터 보름날까지 마을 농악대들이 마을의 가가호호를 돌며 복을 빌어주는 것을 말한다. 집집마다 돌며 걸립치기를 하는데 그 순서는 이렇다. 농악대가 길놀이를 하며 굿을 치면서 한 집의 마당에 들어가서 마당놀이를 하는 동안 그집 여주인은 성주상을 준비한다. 상위에 쌀, 술, 돈 약간을 놓는다. 성주상 앞에서 상쇠가 그 집안이 잘되라고 축원을 해주고 쌀과 돈을 걷어간다. 각 집에서 거둔 쌀과 돈은 마을을 위한 공동사업비로 쓴다. 그 다음에 농악대는 그 집의 부엌, 우물, 고방, 외양간 등등 그 집의 곳곳을 다니면서 축원을 해주고 다음 집으로 떠난다.

우리 나라의 설날의 풍속은 위와 같이 조심스러움과 흥겨움이 그리고 나눔의 정이 같이 어울려져 있다. 그러나 농촌을 기반으로 하였던 이러한 풍속은 도시화와 세계화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정서에 맞게 다시 재창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현대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외국의 관광객들도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세계인의 풍속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임 돈 희
문과대 사학과 교수

'새해를 바라보며'

98년 12월 31일 23시59분. 이모양은 보신각 종소리를 듣고자 올해도 어김없이 TV 앞에 앉는다. '데에엥, 데에엥~' 울려퍼지는 보신각 종소리는, 비록 20인치 작은 상자 속에서 울리기는 하지만 이 세상 어느 종소리보다도 비감하고 따끔하게 이 모양의 가슴을 후려친다. 해마다 반복되고 많은 이들에게 그러하겠지만 말이다.

99년 1월 1일 0시20분. 다소 지루할 만큼 종소리를 듣고 난 후 이모양은 99년 신년계획을 하나, 둘 세우기 시작한다. 지난해 못 다 이룬 영어회화의 꿈, 지난해 실패한 다이어트, 지난해 실천하지 못한 아르바이트, 지난해 한 듯 만 듯한 부모님께 효도하기, 지난해 꿈도 못 꿔본 해외여행… 하나, 둘 적기 시작한 이모양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어라? 이거 지난해 계획이랑 비슷한데' 올해는 한가지 더 실천해야겠다며 적어 넣는다. 올해는 이 계획 모두 성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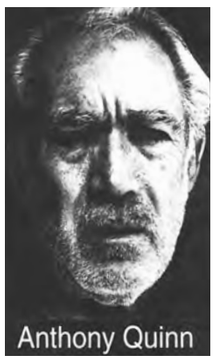
99년 1월 1일 23시59분. 올해는 시작이 좋다. 매일 늦잠 자느라 듣지 못했던 영어회화 라디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청취했고, 매일 밖에만 쏘다닌다고 나무라던 이모양의 어머니가 반색을 할 정도로 집안 일을 거들었고, 매일 거울만 보고 한탄했지만 오늘은 모처럼 공원에 나가 운동도 했다. 99년 1월 3일 0시20분. 이모양은 다시 신년계획을 세운다. 작심삼일에 그칠까 두려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작심삼일을 일년 내내 반복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정말 멋진 99년이 될 것 같은데…' 이모양은 토끼처럼 벌건 눈을 하고 미소짓는다.

김미경 기자

짧은소식

학교 밖에서

안소니퀸 작품전



'창조자, 연인, 생존자로서의 예술가' '신화적인 삶의 힘'이라는 전시명으로 금세기 영상예술의 천재적 아티스트 안소니 퀸 작품전이 펼쳐지고 있다. 영화 '길' '노틀담의 곱추' '25' '나바론' 등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안소니 퀸은 금번 전시회에서는 연기자로서의 모습보다는 천재적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의 주옥같은 회화, 조각, 부조 등의 작품 29점이 선보인다.

오는 31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경주현대호텔문의:053)652-0515/0503, 0561)748-2233.

서예사 특별전개최

'옛 탁본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역사'라는 주제로 한국서예사 특별전이 치러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옛 글씨와 문양의 아름다움을 소개한 탁본의 예술세계를 알리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다음달 8일까지. 오후 1시~5시.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퓰리쳐'상 사진대전

죽음으로 남긴 20세기의 증언-'퓰리쳐상 사진대전'이 연합뉴스의 주최로 열린다. 퓰리쳐상을 수상작품 중 사진부문 전 작품 128점과 촬영기재, 보도자료 등을 전시하며 20세기의 역사적 사건과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는 3월 11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난타 99 공연

주방을 배경으로 사물놀이 리듬을 접목시킨 넌버벌(비언어)연극이 '결혼 피로연을 준비하는 요리사들'이란 줄거리로 공연된다. 해외 시장 진출에 앞서 국내에서 먼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1월 24일까지. 정동극장에서. 화~목 오후 7시, 금~일 오후 4시·7시.

메아리

기형아

▲연신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사건들이 신문, 방송 등에서 보도된다.
부모를 상해하고, 자식을 상해하고,
보험금 때문에 자신의 발목을 자르기까지 한다.
또한 대학졸업자들은 죽을 사(死)란
악명을 고스란히 지니고 사회로 진출하지 못하며, 후배들과 또 경쟁 아닌 경쟁을 한다.
'절망'이란 표현보다는 '슬픔'이란 단어가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다. 예전 고려시대의 '고려장'도 현대사회에 비할 바가 못된다. IMF가 나은 기형아가 무섭게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사회가 각박해져 가고, 치열한 상호 경쟁 속에 '먹히지 않으려면 짓눌러야 한다'는 강박관념들이 어느새 개개인 의식속에 자연스레 자리잡은 것일까.
슈퍼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슈퍼맨이 되어야 하는 스트레스와 비애로 시대가 얼룩져 있지는 않은 것일까.
지금의 대학가 또한 등록금 내기도 힘든 상황과 상대평가라는 성적잣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치열하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현실. 대학도 피해갈 수 없기에…시험기간 중 좋은 자료를 감추는 것은 애교(?). 지성이니 학문이니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허황된 꿈 이야기.
잠시 뒤돌아 보았을 때, 자신의 꿈은 잃어버린 채 현실에 매몰돼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 잘못되게 변해가고 있지 않은지. 절망인지 슬픔인지 혼돈스럽다.
▲대학이 아직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기를 희망한다. 절망적인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악의적으로 또다시 사회로 환원(?)돼 악순환되지 않기를 말이다.
"나는 물론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은 덕택에 난 그 많은 친구들보다 살아남았다. 하지만 지난번 꿈속에서 친구들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강한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난 자신이 미워졌다." 후에 브레히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부끄러웠음'을 자조하지 않을 정도로.

최정식 편집장